

KOTRA 기획조사 04-47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5년도 수출전망**

**2004.12.**

**KOTRA 통상전략팀**

## < 목 차 >

### I. 2005년도 수출전망 개요

1. 개괄
2.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3. 주요 지역별 수출전망

### II. 해외 지역본부별 수출전망

1. 북미지역
2. 구주지역
3. 아시아 대양주 지역
4. 일본지역
5. 중화권 지역
6. 중남미 지역
7. CIS 지역
9. 중동아프리카 지역

## I. 2005년도 수출전망 개요

### 1. 개괄

- 2005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올해보다 약 15% 증가한 2,880억불에 이를 전망

2004년 잠정		2005년 전망	
금액 (억불)	증가율 (%)	금액 (억불)	증가율 (%)
2,500	30.0	2,800~2,900	12~16

- 2004년도 수출은 2,500억불로 전년 대비 30% 증가 추정

-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내년도 세계 경제 및 교역은 유가상승, 소비위축 및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IMF는 2005년도 세계 교역이 7.2% 증가한다고 예상

#### <세계 교역 전망>

	1986~1995 평균	1996~2005 평균	2003	2004	2005
금액 (십억불)	3,398	6,581	7,340	8,680	9,369
증가율 (%)	6.2	6.5	5.1	8.8	7.2

주 : 2004년 잠정, 2005년 전망

자료원 : IMF

- OECD는 미국, 일본 등의 내년도 수입증가율이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 (2004.11.30)

- 미국의 수입증가율 전망 : 10.1%(2004) ⇒ 7.7%(2005)
-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망 : 9.9%(2004) ⇒ 7.1%(2005)

□ 2005년도 우리나라 수출의 유리한 여건으로는,

○ 국가이미지 제고로 수출상품의 프리미엄 획득

- IT,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에서 브랜드 파워 형성 중
- 아시아 지역의 한류 등 영향으로 국가 및 상품이미지 제고

○ 중국 등 주요 생산기지로의 부품소재 수출 크게 증가

-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한국 내 부품 아웃소싱 확대

<우리나라의 주요 부품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2003	2004(1~10)
컴퓨터부품	5,327 (18.0)	5,296 (26.8)
무선통신기기부품	3,239 (58.3)	4,173 (61.6)
광학기기부품	585 (249.2)	1,624 (401.9)

주 :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자료원 : KOTIS

□ 반면, 불리한 여건으로는,

○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는 미달러화 대비 원화환율

- 최근(11.29)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083원

- 원화강세로 수출 채산성 악화,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시장 유지의 어려움 예상

- 그러나 엔화, 유로화 및 주요 경쟁국 통화의 동반강세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부담 다소 완화

<미국 달러 대비 각국 통화 환율변동 현황 (2004.9~11월간)>

원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홍콩 달러화	싱가폴 달러화
4.22%	4.49%	4.65%	0.54%	9.09%	0.38%	4.07%

자료원 : 한국은행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수출에 불리한 영향

-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생산자 물가는 1% 포인트 상승 → 수출채산성 악화 가능성

2.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품목별로는 IT 제품, 자동차 및 부품, 가전이 강세 유지

○ IT제품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17%), 무선통신기기(26%) 등이 수출 주도 예상

- 선진국 소비자층에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
- 그러나 반도체의 내년도 시황은 올해보다 다소 부진 전망
  - 가격하락, 미국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DRAM과 플래시메모리 부분의 정체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자동차(11%)와 자동차부품(28%) 역시 증가 전망

- 한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인지도 확산
- 완성차 수출 증가추세에 따라 부품 수출 활기

○ **섬유류(-6%)**는 섬유쿼터 해제 영향으로 점차 감소추세

- 원부자재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11% 증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 유럽 등지에서 일부 폴리에스터 품목은 경쟁력 유지

○ **석유화학제품**은 최근의 일본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대일 수출 증가 예상**

- PP 등 주요 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쟁우위 전략과 더불어 현지 A/S 체제 구축

<13대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불, %)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기계	10,246	29.5	14,196	38.5	17,378	22.4
자동차	18,797	27.4	24,235	28.9	26,865	10.9
선박	10,052	0.4	13,235	31.7	12,684	-4.2
철강	9,260	41.3	12,940	39.7	15,431	19.3
석유화학	11,885	29.1	16,562	39.4	20,178	21.8
섬유	14,983	-0.7	15,181	1.3	14,324	-5.6
컴퓨터	14,852	19.1	17,336	16.7	20,344	17.4
무선통신기기	18,524	39.5	25,801	39.3	32,437	25.7
반도체	19,523	18.2	27,093	38.8	33,291	22.9
가전	14,844	42.9	15,742	6.1	18,681	18.7
타이어	1,538	14.9	1,937	26.0	2,302	18.8
플라스틱	2,590	19.9	3,319	28.2	3,903	17.6
자동차부품	4,189	55.5	5,728	36.8	7,329	27.9
<b>13대품목 합계</b>	<b>151,283</b>	<b>23.6</b>	<b>193,304</b>	<b>27.8</b>	<b>225,147</b>	<b>16.5</b>

주 : 2004년은 잠정치, 2005년은 전망치

### 3. 주요 지역별 수출전망

- 지역별로는 중국(23%), 중동아프리카(18%), 유럽(14%)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 예상
  - 북미(10%), 아시아(10%), 일본(10%), 중남미(9%) 지역으로의 수출은 올해보다 증가세 둔화 전망
  
- 대중국 수출은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영향으로 산업 및 기업 내 교역 비중 심화 추세
  - 우리나라 대중 수출제품의 70%가 원부자재에 집중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수출증가세와 동행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효과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 2004년 말을 기해 대대적인 서비스 유통시장 개방
  -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정책으로 산업수요 둔화
    -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 프로젝트의 감소
    -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
  
- 2005년도 우리나라의 대북미 수출은 올해에 비해 둔화되나, 10%대의 높은 증가율 이어갈 듯
  - 자동차부품, 타이어, 무선통신기기 등은 20% 이상 수출 확대 전망

- 미 정부의 감세정책, 고용확대로 소비자 구매력 확대
- 미 정부의 대중국 통상압력의 반사이익 기대
  - 그러나 최근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도 가중될 듯
- 약한 달러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수출 채산성 부담 요인 증가
  - 엔화, 유로화 등 주요 경쟁국 통화 역시 미달러화 대비 강세  
→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
- 2005년도 대유럽 수출은 유로화 강세, 현지에서의 브랜드 파워 구축으로 올해 대비 14% 증가할 전망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경기 회복 추세 지속
- 폴란드 등 중동구의 EU 가입 후 시장 확대
  - 자동차 및 부품, 전자 등이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제고 (중동구 국가의 EU 공동관세율 도입)
-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에서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향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 중동아프리카 수출은 고유가로 인한 동 지역의 구매력 확대에 중점
- 원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으로 수입수요 증가 전망

-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장비 및 기계류 수출이 40% 이상 크게 증가 전망
- 정치 안정 후 이라크 및 리비아 진출러시는 제2의 중동 붐 형성 기대
- 저가품 소비재 시장의 경우,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
- 중남미, 일본,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역시 10% 전후의 두자리수 증가율 유지 전망
- 한류를 활용한 대아시아 지역 수출확대, 중남미 및 러시아로의 설비수출 증가 예상

<지역별 수출전망>

(단위 : 백만불, %)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북미	36,901	15.1	44,160	19.7	48,664	10.2
구주	29,934	17.8	38,838	29.7	44,286	14.0
아시아대양주	28,072	18.8	32,638	16.3	35,964	10.2
일본	17,276	14.1	21,595	25.0	23,755	10.0
중화권	56,809	40.2	81,980	44.3	100,753	22.9
중남미	8,802	-0.7	10,300	17.0	11,227	9.0
CIS	2,578	54.6	3,671	42.4	4,203	14.5
중동아프리카	11,710	13.0	16,267	38.9	19,178	17.9

주 : 2004년은 잠정치, 2005년은 전망치

<참고자료>

□ 세계 교역 전망

	1986~1995 평균	1996~2005 평균	2003	2004	2005
금액 (십억불)	3,398	6,581	7,340	8,680	9,369
증가율 (%)	6.2	6.5	5.1	8.8	7.2

주 : 2004년 잠정, 2005년 전망

자료원 : IMF

□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986~1995 평균	1996~2005 평균	2003	2004	2005
GDP 증가율 (%)					
세계전체	3.3	3.8	3.9	5.0	4.3
미국	2.9	3.4	3.0	4.3	3.5
유로지역	-	2.0	0.5	2.2	2.2
일본	3.1	1.6	2.5	4.4	2.3
아시아 <sup>1)</sup>	7.7	6.6	7.7	7.6	6.9
중동	2.7	4.5	6.0	5.1	4.8
아프리카	1.9	3.9	4.3	4.5	5.4
중동구	0.8	3.6	4.5	5.5	4.8
CIS지역	-	4.1	7.8	8.0	6.6
중남미	2.8	2.6	1.8	4.6	3.6
총 GDP 규모 (십억불)					
세계전체	22,262	33,325	36,238	40,108	42,213
국내 총수요 증가율 (%)					
선진국전체	3.0	2.8	2.3	3.5	2.7
미국	2.7	3.8	3.3	4.6	3.3
유로지역	-	1.9	1.2	1.8	2.1
일본	3.4	1.3	1.8	3.5	2.0
영국	2.6	3.3	2.5	3.5	2.5
캐나다	2.0	3.3	4.4	2.7	3.3

주 : 1. 아시아는 일본 제외

2. 2004년 잠정, 2005년 전망

자료원 : IMF

## Ⅱ. 해외 지역본부별 수출전망

### 1. 북미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2005년 세계 경제가 2004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IMF는 미국의 2005년 경제성장률을 2004년보다 다소 낮은 3.5%로 전망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2.9%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4	2005
IMF	4.3	3.5
World Bank	4.3	3.2
Global Insight	4.4	3.2
Goldman Sachs	4.3	3.1
J.P. Morgan	4.4	3.8
Morgan Stanley	4.5	3.5

##### <최근 미국 및 캐나다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0.8	1.9	3.0	4.3	3.5
캐나다	1.8	3.4	2.0	2.9	3.1
주요 선진국 평균 <sup>1)</sup>	1.2	1.6	2.1	3.6	2.9

주 : 주요 선진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영국

자료원 : IMF

- 2004년 대선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부시행정부가 재집권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 해온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부시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대미 수출 환경이 호전될 수 있음.
  - 미국 업체의 아웃소싱에도 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미국 내 실업률이 2004년 5.5%, 2005년 5.4%로 고용문제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개인소비 확대 등 미국 주요경제지표의 호조 속 수입수요 확대 가능성
  - 미국의 2005년 수입규모는 2004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수입규모 증가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2.7	3.4	4.4	9.8	5.0
캐나다	-5.0	1.4	3.8	6.5	4.0

자료원 : IMF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및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상품의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
- 최근 유가의 하향 안정기조 유지
  - 미대선 전후, 끊임없이 치솟던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세

-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이라크 전쟁 지속이 예측되면서 뛰어올랐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음.
-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미국 내 자동차 연료비 하락, AAA에 의하면 지난 몇 달간 평균 2달러를 상회하던 자동차연료비가 평균 1.96달러로 하락

## (2) 비관적 요인

- 미 금리 인상으로 제품 부대 비용 인상으로 수요 감소 가능성
  - 11.10. 현재 미 금리 3년 만에 2%대로 인상
  - 내년말 FRB기준 금리가 5%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는 견해 많음
- 부시행정부 약달러 용인으로 달러약세 지속 전망
  - 부시 행정부의 외환정책은 공식적으로는 강한 달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한 달러를 용인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대외 무역 수지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약한 달러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러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달러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일부기업에서는 1달러 900원대도 전망
- 한국,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대상국 가능성 있음
  -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서비스,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또한 미국은 중국이 위엔화 평가 절상 시 이를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 통화 절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美 철강업체 외국산 수입 규제 목소리 높일 전망

- 내년도에는 미 철강업체의 수익구조가 금년도처럼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05.3. 종료예정인 수입 모니터링제도 영구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분야의 가격경쟁 심화

- 최근 들어 한국산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인지도가 캐나다 시장에서 급상승 중에 있으며, 금년 한해에도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산 브랜드가 가격인하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소니, 파나소닉, 닛산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인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캐 정부정책에 따른 중국, 인도 등과의 교역확대 본격화

- 금년 재집권한 폴마틴 수상의 자유당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향후 교역확대 대상국으로서 중국 및 인도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주력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및 일반 소비재 수출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금년 한해 캐나다의 대중국 수입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0%증가를 기록하였고, 인도 역시 20% 증가를 기록,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입지가 지속 줄어들고 있음.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북미지역	36,901 (5.1)	44,160 (19.7)	48,664 (10.2)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호조세 유지
  - 2004. 1-10월까지 자동차는 23.1%, 무선통신기기는 57.1%, 반도체는 4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에 근거, 미 경제회복 기대
- 미 정부의 감세정책 및 고용확대로 인한 미 소비자 구매력 확대
- 對中 무역적자의 기록적 확대상황 개선을 위한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에 의한 반사이익 기대
- 국제 원자재가 및 캐나다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한 구매력 향상
  -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유가, 원자재가 인상 및 제조업의 부활과 소비경제 활황 등 자체적인 국내 경제기반 강화에 따라, 미달러 및 주요

화폐에 대해 평가 절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구매력 향상

-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200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자, 에너지, 정보통신산업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여 연관 산업의 수입 증가 기대

## ② 어두운 면

-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인한 수입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수요 축소 전망

- 11월 22일 현재 달러당 환율은 1,065.3원으로 이는 지난 1997년 11월 24일 (1,085원)이후 약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2005년에도 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섬유쿼터 폐지 및 후발개도국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로 우리 공산품의 입지 약화

- 의류 및 섬유류, 컴퓨터 등 주력품목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특히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리의 교역조건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

- 2004년 대폭적인 신장세를 보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재정정착 및 경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 가능성

### (3) 종합의견

- 2004년 사상 유례없는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 북미 수출은 올해에 비해서는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에도 1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는 LG 전자, 화천 기계 등의 지상사들도 2005년 대미 수출 환경이 올해에는 못 미치나 수출 목표를 2004년 대비 20-30% 상향 책정하고 있음.
- 단, 최근 약한 달러 추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우리상품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즉, 2005년 우리경제는 소위 3중고 (고유가, 환율인하, 원자재 가격 급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미 수출에 비해 대캐나다 수출 규모는 아주 적은 편이나, 캐나다화 절상이 200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5년 대캐나다 수출은 2004년 수출 증가율보다 오히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2004년에는 U\$3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대캐나다 수출은 약 U\$35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 (1) 13대 주요 수출품목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1,496 (1.9)	1,704 (13.9)	1,889 (10.9)
자동차(741)	9,504 (21.8)	10,521 (10.7)	11,106 (5.6)
선박(7461)	63 (1256.1)	732 (1167.3)	665 (-9.1)
철강제품(61)	921 (-12.3)	1,563 (69.7)	1,785 (14.2)
석유화학(21)	421 (4.6)	603 (43.1)	718 (19.0)
섬유류(4)	3,203 (-9.7)	3,252 (1.5)	2,297 (-29.4)
컴퓨터(813)	2,270 (-23.4)	2,118 (-6.7)	2,068 (-2.4)
무선통신기기(812)	5,589 (39.7)	8,389 (50.1)	11,784 (40.5)
반도체(831)	3,463 (-7.3)	4,866 (40.5)	5,677 (16.7)
가전제품(82)	2,723 (1.1)	2,817 (3.4)	2,905 (3.1)
타이어(3203)	527 (4.5)	691 (31.1)	864 (25.1)
플라스틱제품(31)	459 (19.4)	596 (30.0)	710 (19.0)
자동차부품(7420)	961 (12.1)	1,228 (27.9)	1,601 (30.3)

### (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① 일반기계

- 일반기계류의 2005년 대북미 수출은 2004년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시카고 공작기계 디스트리뷰터 협회와 지상사에 따르면, 2005년에도 3%대의 건실한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제조 공정의 자동화가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자동화 기계 및 컴퓨터 제어 관련 기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관련 업계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5년 대미수출은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에 크게 달려있다고 밝힘.
- 지난 2년간 호조세를 지속한 미국 건설경기는 2005년에는 그 성장세가 주춤하겠지만, IT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증대와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임.
- 현재, 캐나다의 산업가동률은 일부 과열산업의 경우 90%를 초과하여 잉여 생산능력이 결여되는 바, 설비투자 및 기자재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캐나다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② 자동차

- 북미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2005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자동차 판매 1.5% 증가에 그칠 전망(Global Insight)이며, 현대 자동차의 주력 판매 차량인 소나타, 현지산 대체로 수입수요 감소추세에 있음.
- 미 인기 차종인 NF소나타(6기통)가 2005년 3월부터 알라바마 공장(소나타 생산 연산 15만대)에서 본격 생산 됨에 따라 한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 현대.기아의 2005년도 대미 자동차 판매 전망

구 분	2003년	2004년 (추정)	2005년 (전망)
현 대		42만대	47만~48만대
기 아		27만대	29만~30만대
합 계	64만대	69만대	76만~78만대

- 경제성/연비 효율이 높은 소형차를 선호하는 캐나다에서 한국차는 구매대상 우선순위 진입

- 특히 현대 소나타 신모델과 SUV 「Tucson」이 금년중에 출시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현대에서는 10년 무상서비스 프로그램을, 기아 역시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A/S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질 전망

### ③ 선 박

- 미국시장 경기 회복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역량 증대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에 대한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03년 중 국내 조선업체들의 선박 수주실적이 최고치를 기록, 당분간 대미 선박수출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까지 선박수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선박인도기한 도래로 대미 수출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세계적인 해운경기 활황 지속에 힘입어 금년초 US\$133백만의 수출에 이어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컨테이너선 부족으로 선박산업 활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④ 철강제품

- 금년도 철강제품의 수출증가율은 약 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철강 가격 폭등과 지난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에 따른 수출 격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지 수요가들의 충분한 재고 보유, 현재 점정에 달한 철강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도 크고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냉연강판등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업계에서는 물량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큰 신장은 없을 것으로 보며 가격면에서도 현재 피크에 올라 있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미국의 철강 시장은 올해 18% 정도 성장하였으나 내년 성장률은 감소 전망되고 있어 우리의 대미 수출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건축경기 활황이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구조용 철강의 수요 역시 꾸준히 높을 전망.

#### ⑤ 석유화학 제품

- 2005년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증가율은 2004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및 캐나다의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초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의 경우 산업재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어 석유화학 중간재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 가능
  - 폴리에틸렌 레진 등의 중간재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고품질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
  - 지난 2년간 수출실적은 유동성이 심하긴 하나 등폭이 낙폭보다 커, 수요가 평균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⑥ 섬유류

- 미국이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하여 일련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수입상들은 쿼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저 코스트 생산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으로 소싱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내년부터 미국의 수입쿼터 철폐로 수입단가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섬유수출은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섬유수출업체는 최근의 원화 강세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되면 수익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적자 수출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⑦ 컴퓨터

- PC 및 모니터 등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CDD 및 부품시장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기업의 IT지출 증가로 인해 내년의 PC 시장은 금년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와 원화 강세에 따라 우리의 대미 수출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

## ⑧ 무선통신기기

- 미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수출 전망은 아주 밝은 편임.
- 삼성 및 LG 제품의 미국내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확신되고 있어, 당분간 미국 내 무선통신기기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⑨ 반도체

- 2004년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대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은 재고문제로 2005년에는 시장 수요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세계 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금년 28%증가한 2,138억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반도체시장은 내년에는 1.2%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WSTS는 내년 미주 반도체 시장은 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내년 반도체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나, 이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양 사는 이미 제품군이 다양하고 미국시장에서의 수요도 꾸준하며, 재고문제는 이미 금년 4분기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가격하락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미국으로부터 44% 상계관세 판정을 받은 하이닉스의 경우, WTO의 중간보고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와, 최종판결에서도 유사한 결과나 나올 경우, 향후 미국, EU, 일본시장에서 활기를 떨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⑩ 가전제품

-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북미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삼성 및 LG 등의 메이저 기업의 마케팅 활동 강화로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다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선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제품과의 가격 차이마저 줄어들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⑪ 플라스틱 제품

- 지난해 국산 플라스틱 관련 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은 경쟁국인 중국과 미국을 압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내년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교우위가 크게 상쇄되었다는 것이 중론임
- 한국산 플라스틱류 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필름류 시장이 연평균 6% 이상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으며 또한 플라스틱 적용 분야가 자동차 의료기기 식품 포장재 그리고 산업용 기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플라스틱 부품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과 플라스틱 파이프와 건축자재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산업 경기 하향세가 전망됨에 따라 관련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수요 감소가 예

상되고 이에 따른 대미수출 증가세 위축 우려.

## ⑫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 한국산 타이어의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우수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 타이어업계의 고부가가치 UHP 타이어 및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및 무인자동 공정 도입확대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부품은 오더에서 딜리버리까지 2년6개월(30개월)의 리드타임이 있어 내년도 수출물량은 이미 2002년도에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태임.
  - 현지진출 한국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기확보된 수출물량은 금년대비 최소 30% 이상 늘어난 상태로 내년도 차부품의 수출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에는 고유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차부품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유럽부품은 가격이 비싸며,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은 품질문제를 안고 있어, 오히려 시장확대의 호기가 될 수도 있음.

## 2. 구주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영, 독, 불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 1.5~3%대의 회복세 예상
  - 국내 수요 점증 및 유로화 강세효과로 수입수요 동반 증가
- 중동구국가 EU 가입 효과 가시화
  - 서구기업의 중동구로의 수출확대로 원부자재 수입수요 상승예상
  - 중동구 시장내 EU 자금유입으로 중동구권 SOC 프로젝트 본격화 및 투자확대
-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수입수요 증가

#### (2) 비관적 요인

- 고유가 지속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입수요 감소우려
- 중동구 시장내 서구기업들과의 시장경쟁 격화
  - EU역내 무관세 교역에 따른 거래활성화
- 소비심리의 본격적인 회복 지체
  - EU25의 소비지수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2.0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 (EU본부 중기경제전망)

- 실업율도 2003년 9.1%, 2004년 9.1%에 이어 2005년에도 9.1% 유지 전망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구주	29,934 (17.8%)	38,838 (34.5%)	44,286 (14.0%)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국내 수출 주력상품의 브랜드 파워 증가
  - 핸드폰, 반도체, 고급가전 등 IT 제품의 성공적 이미지 구축,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 등으로 주력상품의 수출증가세 지속
- 2003년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마케팅 네트워크 대폭 강화
  - 국내 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현지 사무소설립 등 네트워크 강화가 판로확대에 기여
- 유로화 강세지속으로 인한 대Euro Zone 수출가 유리

## ② 어두운 면

- 유가 폭등현상 재발시 경기 상승국면 퇴조
- 섬유, 단순조립 전자제품의 대중국산 가격경쟁력 열세
- EU 확대로 서구, 중동구국간 역내교역 확대전망

## (3) 종합의견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작년보다 높은 1.5~3%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국내 투자 및 내수 증가가 예상
- 또한 폴란드 등 중동구 EU가입으로 한국산제품(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관세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 있음.
-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인 핸드폰의 가격경쟁 격화, 가전제품 가격 하락 등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전망. 아울러, 중동구 시장의 EU 가입으로 서구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진출 위한 서구선진국과의 경쟁 심화 예상.

##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 (1) 13대 주요 수출품목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실적(증감율)	2004 잠정(증감율)	2005 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1,405 (11.7)	1,699 (20.9)	1,810 (7.0)
자동차(741)	4,856 (43)	7,104 (46.2)	7,904 (10.0)
선박(7461)	4,305 (-15.1)	4,528 (5.4)	4,520 (-0.2)
철강제품(61)	495 (32)	677 (38.2)	715 (5.6)
석유화학(21)	666 (15.8)	812 (14.5)	875 (7.7)
섬유류(4)	1,871 (20.3)	1,846 (-1.4)	1,836 (-0.5)

품목명(MTI코드)	2003실적(증감율)	2004 잠정(증감율)	2005 전망(증감율)
컴퓨터(813)	2,949 (28.4)	3,213 (13.2)	3,510 (9.2)
무선통신기기(812)	2,929 (35.4)	5,683 (87.0)	6,705 (18.0)
반도체(831)	2,322 (9.3)	2,648 (20.5)	2,886 (9.0)
가전제품(82)	3,150 (56.3)	4,327 (35.3)	4,976 (15.0)
타이어(3203)	505 (45.0)	590 (20.5)	708 (20.0)
플라스틱제품(31)	265 (11.3)	351 (29.8)	376 (8.0)
자동차부품(7420)	564 (46.0)	711 (30.0)	860 (21.0)

## (2) 기타 품목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 잠정(증감율)	2005 전망(증감율)
영상기기(821)	1,557(52)	2,335(46)	2,550(10)
컴퓨터부품(8135)	11(9.5)	12(7.1)	12.5(4.1)
정밀화학제품(22)	394(8.5)	437(10.9)	447(2.2)

## (3)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① 자동차

○ 국산 RV 및 디젤차량 중심으로 수요증가.

- 스페인 국산차 증가율 전년대비 90%(금년 7월현재)
- 독일 최근 등록차량의 50%가 디젤 차량

### ② 무선통신기기

○ 호조요인

- 청소년층 중심 카메라폰 수요 증가
- 국산제품 인지도 확고 및 마케팅 강화

○ 부진요인

- 시장경쟁 치열에 따른 가격인하 추세

③ 가전기기

○ TFT-LCD, 벽걸이 에어컨, 고급냉장고 등 고부가가치의 한국 고급가전 판매 호황세

-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판매확대 추세

④ 일반기계

○ 독일 기계 해외수요 증가

- 영국 주택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중장비 수요증가
- 폴란드 등 중동구국 경기상승과 설비투자 회복

⑤ 컴퓨터

○ 노트북을 중심으로 한 시장수요 증가

-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의 EU 수준과 격차해소 위한 정보통신 분야 투자증가 추세

⑥ 반도체

○ 호조요인

- 컴퓨터 수요의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사업환경 개선관련 정보통신 설비 투자 등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

○ 부진요인

-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
- 전자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감소

⑦ 섬유

- 섬유 쿼터제 철폐에 따른 중국, 인도 등 섬유수출국과의 경쟁 심화
- 경쟁국 대비 국내 고인건비로 가격경쟁력 약화

⑧ 조선

- EU의 국내 조선산업 규제 지속
- EU, 한국의 '국내조선업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제소 건 분쟁중

### 3. 아시아 대양주 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2004년 협상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발효 예상되는 한국-싱가포르 FTA에 이어 한국-ASEAN FTA 협상도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환경 개선 예상
- 미국 달러화 대비 싱가포르 달러를 비롯한 대부분 통화 강세로 수입 구매력 증가(단, 미국 달러화대비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제외)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 지속 전망
  -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단, 성장속도는 둔화 전망)
- 말레이시아, 관세 장벽 인하조치 시행
  - 비즈니스 비용 감소와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섬유, 제조제 등 118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수술용 장갑, 목재산업 중간재 등 27개 품목의 관세를 폐지함
- 인도, 수입관세의 지속 인하로 수입 자유화 확대
  - 인도 정부는 향후 1~2년 내에 관세를 아세안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천명

## (2) 비관적 요인

-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심화로 미국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달러화 약세가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세계 경기 둔화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등 거대 경제의 성장세 둔화 예상 및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동남아 테러 발생 가능성 등 지역정세 잠재 불안요소
-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 지속 혹은 악화 가능성
  - 이라크 전쟁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전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경우 불안요소가 기폭제가 되어 고유가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역내 또는 역외국과의 FTA 추진
  - ASEAN + 3(한,중,일) 협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말련간 FTA가 내년 상반기 중 체결 예정으로 일본과 경합 품목인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 타격 예상
  - 인도/태국 FTA(2004.9월 부분발효), 인도/아세안 FTA(2005.1월 부분발효 예정), 인도-싱가포르 FTA 협정 체결 등 인도와 경쟁국간 FTA 발효에 따른 부정적 영향
- 말레이시아, 링깃화 고정환율제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 링깃화는 달러당 RM3.8에 고정되어 있어 달러와 동반하락하면서

수입가격 상승 부담. 올해에만 유로화 대비 10% 하락했으며, 싱가포르 달러 대비 6년래 최고인 RM2.3에 도달함. UBS 보고서에 의하면 링깃화의 적정가치는 RM3.39 정도 예상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아시아 대양주	28,072 (18.8%)	32,638 (16.3%)	35,964 (10.2%)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 국내 주요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전개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전자 등은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자동차, 디지털가전 등 전략품목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있어 관련 이동통신단말기 및 컬러링서비스 등 콘텐츠 수출 확대 전망

##### ○ 한류열풍 지속에 따른 국가 이미지 상승 및 콘텐츠 수출 증가 기대

-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겨울연가로 촉발된 한류열풍이 지속되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상승

- 방송국별 거의 매월 한국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핸드폰 컬러링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온라인 게임 등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특히 2005년부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수입관세의 지속 인하로 수입 자유화 확대

- 인도 정부는 향후 1~2년내에 관세를 ASEAN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천명

② 어두운 면

○ 싱가포르, 2004년 2분기부터 시작된 전자산업의 재고 누증 및 성장 둔화

- 싱가포르 전자산업은 석유화학과 함께 제조업의 양대축으로 2003년 총 국내수출의 43%, 총 제조업 산출액의 40%, 제조업 전체 인력 중 약 25% 고용 비중을 갖고 있어 매우 중요

○ 2005년 세계경제 둔화 전망으로 싱가포르 경제도 금년 8%대에서 5%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약화 예상

③ 종합의견

○ 2005년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동남아 및 서남아의 경우 수출시장의 경기 둔화로 인하여 2004년 보다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라크사태의 지속 가능성, 석유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혼란, 테러 재발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하지만,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메라폰 등 이동통신단말기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판매가 늘고 있어 수출 증가율은 완만해지겠지만 증가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 (1) 총괄표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1,615	(26.9)	2,007	(24.3)	2,330	(16.0)
자동차(741)	1,343	(35.5)	1,763	(31.3)	2,088	(18.4)
선박(7461)	974	(50.5)	475	(-51.2)	562	(18.4)
철강제품(61)	1,638	(7.6)	2,387	(45.7)	2,721	(14.0)
석유화학(21)	1,693	(21.2)	2,229	(31.6)	2,458	(10.3)
섬유류(4)	2,619	(0.3)	2,701	(3.1)	2,513	(-7.0)
컴퓨터(813)	1,775	(15.1)	1,948	(9.7)	2,263	(16.2)
무선통신기기(812)	2,659	(72.4)	3,082	(15.9)	3,618	(17.4)
반도체(831)	3,796	(15.1)	4,758	(25.3)	5,289	(11.2)
가전제품(82)	3,796	(176.9)	1,600	(-57.9)	1,769	(10.6)
타이어(3203)	104	(16.6)	218	(109.6)	242	(11.4)
플라스틱제품(31)	453	(25.7)	547	(20.8)	603	(10.2)
자동차부품(7420)	564	(68.4)	739	(31.0)	849	(15.0)

## (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판매량 1998년 6위에서 2004년 현재 4위로 4단계 상승했으며, 기아자동차까지 포함 시 시장 점유율 더욱 확대 추세
- 말레이시아,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에 이어 카렌스도 국민차로 지정
  - 2004년 12월부터 카렌스 본격 생산 예정으로 파트너인 나자 그룹이 대형 자동차 유통그룹인 DRB-HICOM의 최대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수입허가권(AP) 대량 확보 및 유통 A/S망을 확대 보완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
  - 기아, 현대, 쌍용 자동차의 수출이 최근 수년간 배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도 동반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LG CNS가 Proton과 합작으로 설계에 참여한 소형차 모델 TRM, SRM이 내년 상반기 출시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인도, 대인도 자동차부품 수출은 주로 현대자동차의 현지생산을 위한 부품조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생산설비를 기존 15만대에서 25만대로 확대한 바 있어 우리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매월 3천만불 내외로 2004년에도 연간 3.6억불에 달할 전망이며, 2005년에도 시장성장을 정도인 10% 이상의 수출증가가 예상됨.

## ② 반도체

- 한국 반도체는 대부분 메모리로서 PC 경기와 밀접한 연관
  - 2004년 세계반도체산업 성장률은 27.8%로 예상되지만 2005년에는 대폭 둔화되어 1.2%가 될 것으로 전망
- 우리의 대인도 반도체 수출은 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및 홍콩법을 통해 각각 수출하고 있어 실제 수출액과 통계상의 수출액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유통 경로는 당분간 변화되기 어려워 인도로의 직수출 물량은 2004년 대비 약 20% 증가한 12백만불에 그칠 전망

## ③ 가전제품

- 냉장고, 싱가포르에서 대용량, 다양한 옵션(양문 여닫이) 인기 추세로 한국산 꾸준한 시장 점유 확대 예상
- LG 전자 싱가포르 지사, 2005년 초까지 법인 전환 계획에 따른 인력 예산 확충과 시장점유 확대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 예상

## ④ 무선통신기기(이동통신단말기)

- 싱가포르, 3G 및 카메라폰 선호 현상 등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꾸준한 시장 확대 예상(카메라폰은 아직 청년층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청장년층의 신규 수요 계속 확대 예상)
- 말레이시아, 200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모두 3세대 이동통신을 본격 서비스함에 따라 단말기 교체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가 30% 이상 점유율로 시장 2위에 오른 데 이어 LG도

대대적인 마케팅 공략으로 휴대폰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04. 8월말 현재 4,000만명으로 매년 100% 전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05년에도 약 80% 증가할 전망

- 인도는 현재 핸드폰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이후 직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현지 생산에 따른 부품수입이 증가할 전망

- 또한 중국이 저가 모델을 앞세워 시장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의 핸드폰 수출은 금년대비 약 10% 증가하여 시장 성장률에는 크게 못미칠 전망

## ⑤ 철강

○ 인도, 국제 철강가격 인상과 인도내 수요 증가가 맞물려 기존 주력제품인 냉연강판과 함께 열연강판, 강관/강선 등 총체적 수요 증가

- 인도 내 인프라 개발 및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철강제품의 수요 신장세는 지속될 전망

- 다만 금년도 철강제품 가격이 이미 급등한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⑥ 선박

○ 인도의 선박 수요는 인도의 교역규모가 매년 25% 전후로 신장되

고 있는데다, 기존 노후 선박의 교체수요가 맞물려 일정기간 활황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다만 국내 조선경기 호황으로 2007년까지 생산케파가 거의 소진된 상황인데다, 최근 철판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채산성을 고려하여 LND선박이나 컨테이너 선박등을 중심으로 선별수주에 주력할 전망이다
- 내년도 인도 물량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약 2.3억불로 추산되어 금년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 4. 일본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04년은 3/4분기에 수출과 생산이 다소 둔화세를 보였으나 연간 전체적으로는 3%내외의 성장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05년도 들어서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으나 회복기조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주 수요부문의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을 배경으로 대일 주력수출품목인 철강류의 수출도 지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전력기자재, 건설자재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코스트 절감을 위한 일본기업의 해외아웃소싱붐은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를 보여오고 있어 아국의 수출 확대 기회로 작용
  - 특히 11월중순 현재 달러당 105엔대를 기록하고 있는 엔화환율이 향후 더욱 하락하게 될 경우 일본기업의 아웃소싱붐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
- '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내 한류붐의 저변 확대 추세로 문화 콘텐츠상품, 식품 등의 국산제품 대일수출 환경이 점차 밝아질 것으로 전망

#### (2) 비관적 요인

- 원유가 상승요인이 계속되어 일본경제 회복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중국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일본경제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입수요 지속

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액정패널 등의 경합 심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신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다분
- 원유가 급등, 전자부품의 재고조정 등을 배경으로 한 수입수요측면의 마이너스 요인 대두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본	17,276(14.1)	21,595(25.0)	23,755(10.0%)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일본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배경으로 한 수입수요 호조
- 주력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의 경우 가격하락요인은 있으나 아국산은 높은 경쟁력을 배경으로 디지털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수출 호조세 유지 전망
- '05년이후로도 엔고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적지 않아 이렇게 될 경우 달러표시 수출액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

## ② 어두운 면

- 미국,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수출, 생산 둔화로 일본 경기가 '04년 3/4분기들어 둔화세를 보임으로써 이같은 추세가 '05년 들어서도 지속될 경우 일본의 수입수요 둔화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배제 곤란
- 주력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부문의 경쟁 격화, 공급물량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세가 주춤하지 않을 경우 대일수출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원유가 상승, 전자부품의 재고조정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전망

## ③ 종합의견

- 일본 경제는 '04년 3/4분기중 다소 둔화세를 보였으나 기초상으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04년에 이어 '05년중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입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유가 급등, 반도체 공급여력 증강으로 인한 가격 하락, 전자부품의 재고조정 움직임 등 경기 둔화요인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자동차, 디지털 등 전기전자부문의 생산,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GDP의 약 50%를 점하는 개인소비도 완만한 수준이긴하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과 더불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황
- 근년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일본기업의 해외 아웃소싱붐은 엔고

국면으로의 이행을 배경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이상의 제반 요인을 고려시 '05년중 아국의 대일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신장율 둔화가 예상되긴 하나 두자릿수의 신장율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 (1)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701 (29.3)	1,036 (46.7)	1,346 (30.0)
자동차(741)	31 (-5.1)	35 (12.9)	38 (9.0)
선박(7461)	3 (-47.7)	9 (200.0)	14 (50.0)
철강제품(61)	1,365 (33.0)	2,090 (53.1)	2,821 (35.0)
석유화학(21)	660 (37.0)	901 (36.5)	1,126 (25.0)
섬유류(4)	803 (-11.5)	781 (-2.7)	749 (-4.0)
컴퓨터(813)	855 (-20.6)	1,091 (27.6)	1,309 (20.0)
무선통신기기(812)	245 (71.5)	321 (31.0)	417 (30.0)
반도체(831)	3,191 (22.8)	3,716 (16.5)	4,162 (12.0)
가전제품(82)	1,099 (14.7)	1,267 (15.3)	1,470 (17.0)
타이어(3203)	36 (30.0)	53 (47.2)	78 (48.0)
플라스틱제품(31)	441 (7.4)	568 (28.8)	693 (22.0)
자동차부품(7420)	269 (27.1)	327 (21.6)	386 (18.0)

##### (2) 총괄표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석유제품(133)	2,604(8.9)	3,040(16.7)	3,496(15.0)
영상기기(821)	658(76.6)	833(26.6)	1,041(25.0)
금형(753)	199(6.4)	328(64.8)	459(40.0)

### (3)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① 일반기계

- '04년 3/4분기이후 유가 상승, 미국.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 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의 회복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아국산 일반기계류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높은 신장세 지속 전망
- 그동안 경기를 견인해온 설비투자의 경우 '04년에 1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내년도에도 높은 수준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04년중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액은 1997년이래 7년만에 1조엔을 상회, 1조15백억엔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3년간은 연간 1조엔대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일본공작기계공업회)

#### ② 선박

- 선박의 경우는 내년도도 특수용도 선박을 중심으로 견실한 신장세 유지 전망, 특히 '04년 하반기의 원화강세 현상이 내년도도 지속될지 여부는 선박의 대일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선박류는 여타 제품과 달리 달러결제 비중이 높음)

#### ③ 철강제품

- 철강제품은 주 수요부문인 자동차, 가전 등이 내년도도 수출, 생산 공히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수출 전망은 양호한 편
- 특히 아국의 주력 수출기업인 POSCO의 경우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물량배정(특히 대일본)단계에서부터 회계처리 기준통화를 엔화로 적용하고 있는 등 만반의 환율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 ④ 석유화학

- 석유화학제품도 최근의 일본 경기 회복세 가속을 배경으로 착실한 수출 신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음
- PP 등 주요제품의 경우 아국산은 가격경쟁력에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딜리버리측면에서 유리한 점, 그리고 현지 애프터서비스 체제도 비교적 잘 구축.운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어 수출 신장세에 기여해오고 있는 상황

#### ⑤ 섬유제품

- 경기 회복세를 배경으로 그동안 생산.수출 등 기업부문에 비해 회복이 지연되어오던 개인소비도 차츰 회복세를 더해오고 있는 상황
- 또한 그동안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가속 등을 배경으로 저가품에 몰리던 구매수요가 최근들어 고급품에서도 일고 있어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중저가품에 특화해오던 유니크로 등은 최근 고급브랜드제품강화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아국산 섬유제품의 경우 특별히 시장쉐어 만회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내년에도 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⑥ 가전제품

- 가전제품의 경우 그동안 세계를 석권해오고 있는 일본 메이커에 밀려 일본시장에서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최근들어 아국산 가전

제품이 서서히 주목을 받아오기 시작하고 있음

- 이처럼 아국산이 일본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제품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 틈새시장 공략이 주효한데 기인
- LG 등은 일본의 유명 유통업체와(가마, 다이키, 호백 등)와 제품을 공동개발, 이들 유통업체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 하는 등 현지에 밀착된 마케팅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대이상의 판매 확대 효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중
- 이같은 아국산의 호조세를 내년이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교적 높은 수출 신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디지털경기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 평판TV의 경우는 고소득층, 매니아층의 수요가 一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높은 잠재수요를 갖고 있어 가격인하 추세하에서 수요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디지털가전은 중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시장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⑦ 컴퓨터

- '04년의 경우 컴퓨터부문에서는 델, HP 등 미국계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일본계(NEC, 후지쯔, 소니 등)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 전개
- '04년(상반기 기준)의 경우 출하대수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579만 대로 아테네올림픽, 흑서로 인한 디지털가전 등의 특수로 개인용은 3% 정도 감소하였으나 기업용은 10%가 증가, 이로인해 개인용부문에서 강점을 보유한 일본계 메이커의 쉐어는 하락세 시현
- 컴퓨터의 일본시장 수요는 전반적으로 '05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신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⑧ 반도체

- 미국 반도체공업회의 예측에 의하면 내년도의 세계 반도체판매는 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이는 가운데 일본시장의 경우 가격 하락, 재고조정 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시황 전망은 밝지 않은 편
- PC 등에 사용되는 DRAM,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의 판매도 공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이들 양대 품목이 여타 품목의 성장세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 ⑨ 무선통신기기

- 전자기기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05년의 성장률은 6.5%로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무선통신기기는 3.7%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03년에 PC시장은 13%,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시장은 21% 성장을 실현, 이들 양 부문은 '04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이들 양대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자기기 전체로는 '04년에 1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PC 등 신호처리기기분야와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분야를 포함 산업기기시장 전체로 '04년에 두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그러나 '04년에 성장 회복세를 달성한 수 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한 전자기기 전체로는 한자릿수의 성장률로 환원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 5. 중화권 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① 중국

- 금년 GDP 성장률은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시경제조절 정책의 실시로 내년도 경제성장은 금년대비 다소 하락세가 예상되나 8%이상의 고성장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됨

주요 경제기관의 중국경제 전망

기관명	2004	2005
세계은행	8.8%	7.8%
IMF	9.0%	7.5%
ADB	8.8%	8.0%
중국사회과학원	9.4%	8% 이상
중국 국가신식중심	9.3%	8.5-8.8%
국가발전연구중심	-	8-8.5%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

- 금년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의 실시로 금년과 내년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과 2005년 명목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각각 24.0%와 15.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년 1-9월간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3조 8,439억위안에 달하며 소비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부동산, 자동차, 전자통신제품 등 신흥소비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시장구조의 고도화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추이

(단위 :%)

항목	2002년	2003년	200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GDP 성장률	8.0	9.3	9.7	9.7	9.5
공업부가가치 증가율	12.6	17.0	17.7	17.7	17.0
투자증가율	16.1	26.7	47.8	31.0	29.9
소비품 소매증가율	8.8	9.1	10.7	14.9	13.0
수출증가율	22.3	34.6	34.1	37.1	35.3
수입증가율	21.2	29.9	42.3	43.0	38.2
·물가상승률	-0.8	1.2	2.8	3.6	4.1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중국의 경제성장과 시장개방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생산과 투자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

- 금년 1-10월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537.81억달러로 지난해 전체실적 535.05억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같은기간 새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전년대비 7.66% 증가한 35,202개에 달함

중국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이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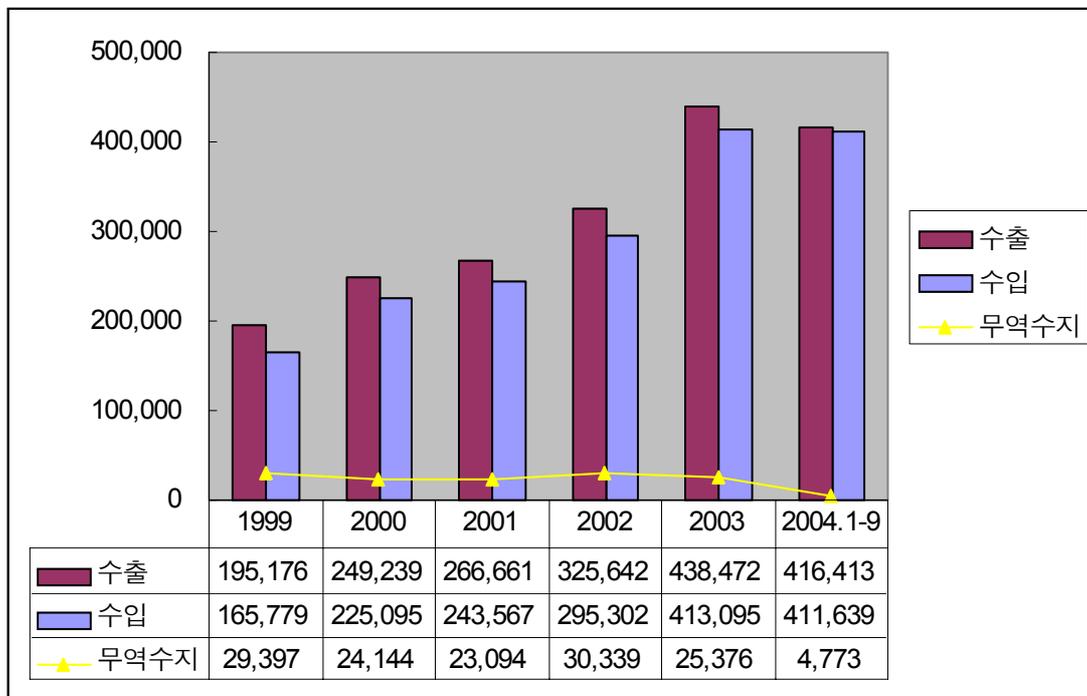
		2002	2003	2004.1-10
외국인 투자	신규 설립회사(개사)	34,171(30.7)	41,081(20.2)	35,202(7.66)
	계약기준	828(19.6)	1,151(39)	1,189(34.19)
	실행기준	527(12.5)	535(1.4)	537(23.4)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중국은 WTO 가입 4년차를 맞이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폭이 더욱 완화되는 한편 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 및 무역마찰 해소를 위하여 수입시장 확대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지속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의 대외개방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중국의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섬과 동시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3대 교역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중국정부는 내자기업의 수출입권 보유자격 완화조치 이후 금년 12월 11일부터 상업·유통분야의 외국기업의 진출자격 및 수출입권한을 크게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중국의 대외교역 주체 증가에 따라 수출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원 : KOITS 중국통계

## ② 홍콩

- 2004년 홍콩의 전년대비 수입/수출이 모두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경제성장률 7.5% 달성을 낙관하고 있음
- 2005년에는 5.5%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음.(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2005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5%대로 예상)

주요 경제기관의 홍콩경제 전망

기관명	2004	2005
홍콩정부	7.5%	5.5%
IMF	7.5%	4.0%
홍콩대학아태경제 협력연구센터	7.0%	-
홍콩과기대 경제발전연구센터	7.2%	4.5%
HSBC	-	3-4%
Bank of China	-	4-5%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

- 경기회복에 의한 내수활성화가 가시화 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68개월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하고 2004년 7월부터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섬. (7월 +0.9%, 8월 +0.8%, 9월 +0.7%, 10월 +0.2%)
- 2004년 7월 1일 중국정부의 관광자유화조치이후 중국관광객의 홍콩방문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음.
- 또한, 시중자금 경색에 따른 통화수축현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대체변수에 따른 일부 상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정 적자폭도 예상치를 밑돌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를 통해 2008년/2009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전망

- 3/4분기 공업생산기재(工業生産器材) 투자증가율이 전년대비 33%나 증가하는 등 중국-홍콩간의 CEPA협정에 따른 홍콩국내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지난 수년간 대부분의 홍콩제조회사의 중국이동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CEPA협정이 일부 홍콩국내 산업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성장분위기가 고스란히 홍콩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 구조로 본다면 2005년 중국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홍콩의 재수출 부문역시 일정수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홍콩과 중국 주강삼각주지역간의 경제협력이 꾸준히 증가되어 감에 따라 대홍콩 경유 대중국 원부자 재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③ 대만

- WTO 가입 양허관세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 반도체, LCD 관련 설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동분야 설비 및 부품 제품에 대하여 면세 또는 관세우대정책 적용할 계획에 있어 반도체 설비 및 기기 수출 증가세가 기대됨
-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단가 상승 요인도 있음

## (2) 비관적 요인

### ① 중국

- 거시경제조절을 위한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고정자산투자의 감소로 내년도 중국 경제는 금년대비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아직 충분히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금리인상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음
  - 산업별로 △기계제조 △유색금속 △플라스틱제조 △자동차 제조업 △고무제조 등 업종의 경기지수 하락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은 일부 소비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기대 및 신뢰지수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각각 4.8%p와 4.2%p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긴축정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소비신용대출의 감소로 주택, 자동차 등 소비진작 효과가 큰 소비시장은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내년도 세계 경제는 유가상승, 국제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금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교역도 상대적인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대외무역 현황보고>에 따르면 중국

의 내년도 대외교역은 상대적인 둔화세가 나타나 금년대비 15% 정도 증가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경제현황분석 및 예측>에서도 내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금년대비 상대적인 둔화세가 예상, 금년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중미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무역분쟁과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압력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시장 확대, 시장개방 등 간접적인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민폐 절상에 따른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편, 중국정부도 외국의 반덤핑 공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내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對外貿易壁壘調查規則)>를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 중국의 반덤핑 피소건수가 지난 7년간 세계 1위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자국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② 홍콩

○ 가장 우려되는 외부적 요인은 미국 경제 동향이 홍콩에 미치게 될 직간접적 영향임

- 홍콩 경제 전문가들은 홍콩의 2004년 경제성장률이 7%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2005년에 경우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 전체적

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성장률이 다소 감소한 4.3%정도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홍콩정부의 예상치를 1%이상 낮추어 예상하고 있는 것임

-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확대에 따른 정부의 긴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소비시장이 금년만큼 활황세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홍콩의 수출증가율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 재수출을 위한 수입을 하는 홍콩의 무역구조로 인해 수입부분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5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홍콩 경제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경제성장이 경제긴축정책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4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3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05년에는 2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홍콩의 재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1차례 금리인상조치로 인한 세계경제의 미치는 영향보다는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성 및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문제 등이 보다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달러약세에 따른 우리기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End User가 아닌 홍콩바이어들에게는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③ 대만

○ 대만의 대한 무역역조 확대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

- 대만정부는 금년도 대한수입액이 100억불을 돌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국의 대한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쟁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정부 차원

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양안 경제 교류 확대

- 양안간의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잖은 품목에서 수입선이 한국 등에서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기과열진정책 본격화

- 대만을 통한 삼자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섬유, 플라스틱,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대만 수출도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나. 수출 전망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중화권	56,809 (40.2)	81,980 (44.3)	100,753 (22.9)

(2) 전망근거

① 중국

<밝은 면>

- 금년 들어 대중수출이 50%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며 중국은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과의 수출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중 교역추이

(단위 :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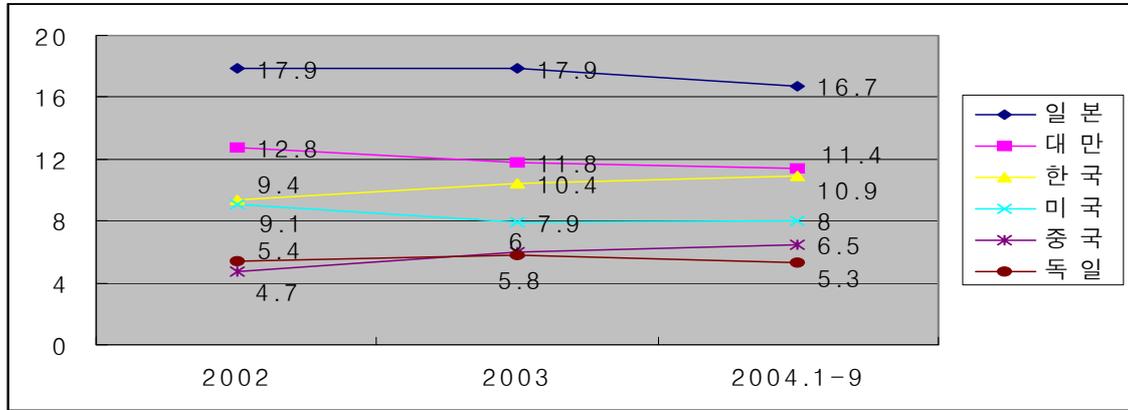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10
총 액	314.1(43.2)	314.9(0.2)	411.4(30.6)	570.9(38.7)	645.8
對中수출	186.1(37.6)	181.9(-1.4)	237.5(30.6)	351.9(47.8)	408.9(46.9)
對中수입	128.0(62.4)	133.0(3.9)	173.9(30.8)	219.0(25.9)	236.9(33.9)
무역수지	58.1(3.5)	48.9(-2.8)	63.5(29.8)	132.9(109.2)	172.0

자료원: KOTIS, ( )은 증감율

- 교역액 기준으로 '92년 한·중 수교 당시 6위에서 93년 3위로 상승하였고 지난해 2위, 금년 1위로 부상하였음
  - 수출액 기준으로 '92년 제6위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은 2001년 일본을 앞서 2위로 부상한 뒤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았음
  - 무역수지 기준으로 3대 흑자시장에서 지난해 최대 흑자시장으로 올라섰으며 금년도 대중교역 흑자규모는 200억달러에 근접 전망
- 한중 양국간 교역의 확대와 함께 중국의 수입시장에 있어 한국산 제품의 시장비중은 기타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당분간 소폭 확대 전망
- 최근 중국 수입시장 내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는 없으나 한국과 미국의 비중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대만, 독일의 비중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자국산 제품의 역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비중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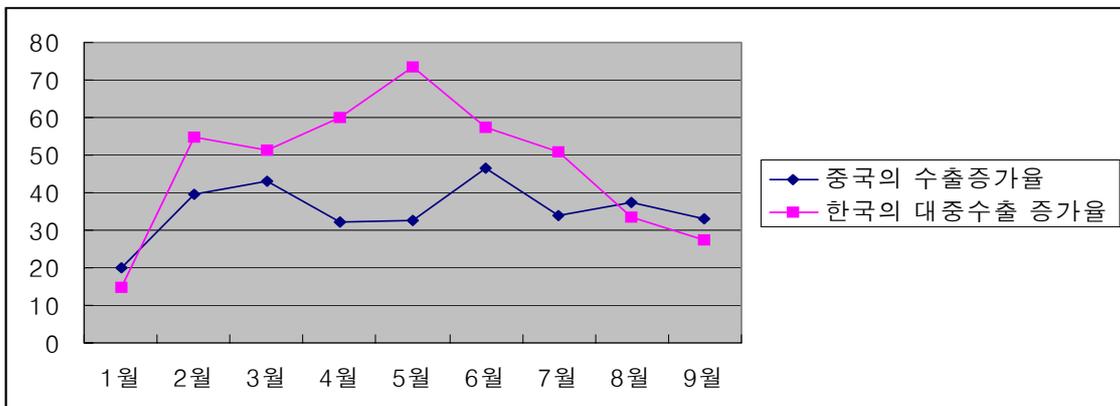
자료원 : KOTIS 중국통계

○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산업내 교역비중이 높고 대중 가공무역투자 구조와의 연관성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중국의 생산력 증가와 해외수출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수출제품의 70%가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수출증가는 우리의 대중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수출증가 추이와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 추이 비교

(단위 :%)



자료원 : KOTIS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매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있어 대중수출 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IT 및 부품의 관세율이 0%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이 의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화학, 철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중국의 IT 및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빠르게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연도별 대중 주요수출품목 순위변화

(단위 : 억 달러)

2002			2003			2004.1-7		
순위	품목	금액	순위	품목	금액	순위	품목	금액
1	합성수지	16.9	1	합성수지	21.1	1	컴퓨터부품	18.8
2	무선전화기	13.0	2	컴퓨터부품	19.9	2	합성수지	16.5
3	컴퓨터부품	9.4	3	무선통신기기부품	17.4	3	무선통신기기부품	16.4
4	무선통신기기부품	8.5	4	집적회로반도체	14.4	4	집적회로반도체	14.0
5	석유화학합성원료	8.1	5	모니터	13.4	5	모니터	12.5
6	음극선관	7.5	6	무선전화기	12.6	6	광학기기부품	10.3
7	모니터	7.2	7	중유	10.8	7	자동차부품	9.7
8	중유	6.9	8	석유화학합성원료	10.7	8	석유화학합성원료	9.6
9	집적회로반도체	6.1	9	자동차부품	9.4	9	열연강판	8.3
10	석유화학중간원료	5.7	10	열연강판	8.9	10	석유화학중간원료	7.0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주 : MTI 4단위 기준

<어두운 면>

○ 2002- 2004년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개방효과로 대중 수출은 40%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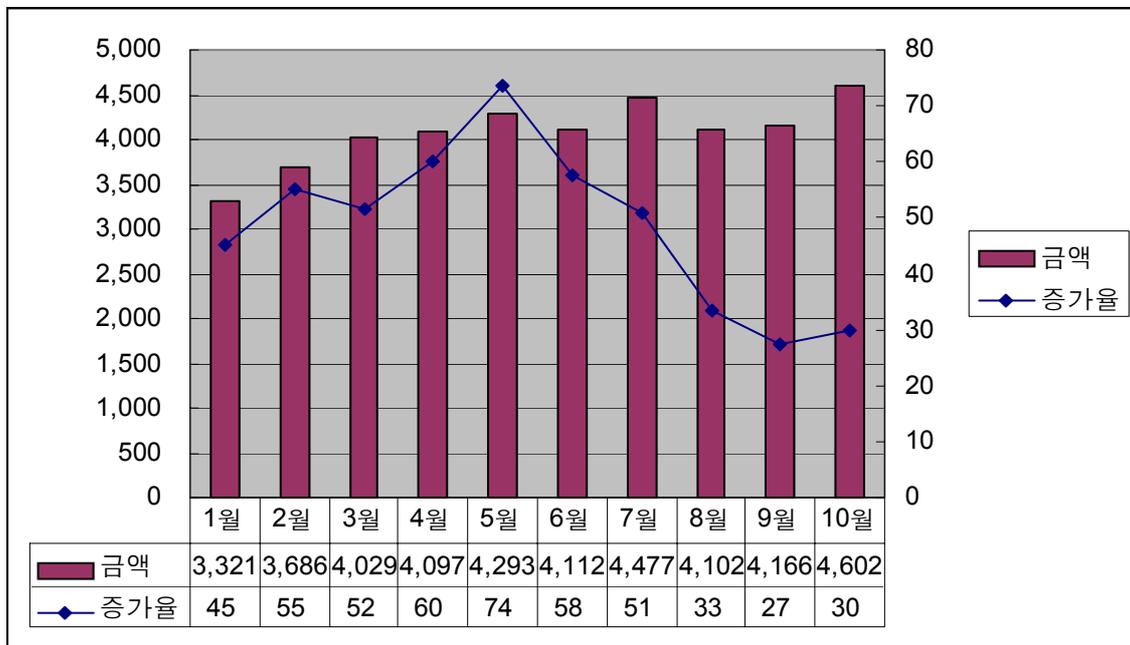
- 2~3년간 급등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효과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점차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조절을 위한 긴축정책이 내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예정으로 고정자산투자 감소와 신규 프로젝트 감소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본격적인 긴축정책 조치가 실시된 하반기 이후 월별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금년 우리나라의 월별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과거 대중투자의 증가가 대중국 원부자재 수출증가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원부자재의 중국 내 조달비중이 늘고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는 지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내년도부터 중국 내 상업분야의 독자투자가 개방되는 한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우리의 대중투자 중 서비스 분야에 대한 증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화장품 등에 있어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중국내 기술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우리의 수출주력 품목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컴퓨터, 가전, 비철금속 등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격속도가 빨라 양국 간 제품경쟁력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

## ② 홍콩

### <밝은 면>

- 홍콩 경제가 중국 경제와 절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국 경제의 WTO 가입이후 법제화를 통한 투명성 등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무역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어두운 면>

- 우리나라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으로의 직접 수출로 전향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인 수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05년도에도 현재의 수출  
입증가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홍콩 수출증가  
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내 다국적 경쟁사들과의 경  
쟁심화와 임가공수출에서 내수시장진출로의 방향전환시 현지공  
급으로 공급선 전환 등도 완제품보다는 원부자재 수출이 많은  
현재 수출구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WTO가  
입 후의 중국의 여러 가지 체제가 정립되어 가는 것도 대홍콩수  
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한국간 수출  
입구조상 한국의 흑자폭이 큰 것도 한국기업들의 수출지역 다변  
화전략과 중국내 통상압력 등으로 작용하여 일부 수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③ 대만

<밝은 면>

- 대만 공업국 반도체, LCD 관련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우  
대계획발표(2004-11-10)
- 금융 및 소비시장의 소폭 성장기대
  - 금융감독원의 200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까지 유통된  
신용카드 및 그 결제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7.27%, 26.90% 성장.  
대출 역시 10.14% 증가
  - 금융시장 및 소비시장이 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겠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한류의 정착

- 중국 본토에 비해 한류 기세가 무척 약했던 대만. 지난 대장금 방송이후 다시 한번 한류 일어남
- “대장금” 드라마로 인하여 좋은 이미지 구축 : 특히 한국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인식도, 신용도 상승

<어두운 면>

○ 고유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입 수요 감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중화지역 자문 경제위원 Paul Cavey는 내년에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세를 띠겠지만, 그래도 배럴당 60달러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내년 대만 경제성장 둔화, 4.25-4.8% 예상

- 대만 내 저명 경제학자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5.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둔화된 4.8%가 될것으로 전망
- 중화경제연구소: 4.25-4.71% 사이 예상, 대만경제연구소: 4.62% 예상

○ 내년 대만 소비시장 다소 위축될 듯

- 민간소비: 2.76%('04년) → 2.61%('05년)
- 정부소비: 0.74%('04년) → 0.11%('05년)
-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소 2004년 11월 8일 발표

### (3) 종합의견

#### ① 중국

- 중국은 WTO 가입 4년차를 맞이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보다 크게 완화되고 8%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입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난 2년간 40%이상의 높은 수입시장 확대와 WTO 가입 효과의 감소로 내년 중국의 수입시장은 상대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이 전망됨
- 중국의 개방조치 확대와 국내 시스템 정비의 가속화로 비즈니스 환경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편입으로 세계경기과 시장환경 변수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내년도 중국경제에 있어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세계 주요국가의 경기변화 △유가상승 △환율절상 등이 중국경제 및 수입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정책과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자기업 유입의 확대로 중국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의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제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와의 통상마찰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중국과 선진국간의 위안화 평가절상 논쟁과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으로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② 홍콩

-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2004년 상반기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 2005년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에 부진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임.
  - 또한 중국의 WTO가입 4년차를 맞이하여 각종 시스템이나 제도가 갖추어지고 중국정부에서의 거시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달러약세기조 및 원유가상승은 2005년 수출시장에 어둔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 제3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홍콩을 경유한 제3국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디지털가전부분과 반도체부분을 중심으로 2004년보다는 증가율이 낮아지겠지만 꾸준한 수출신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③ 대만

- 2005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의 4.25-4.71%로 예상(중화경제연구소)
  - 대만 국내 소비, 생산 경기는 금년에 비해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지속적인 성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

- 대대만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관련 품목(반도체·LCD 설비 및 부품, 석유화학원료, 반도체, 핸드폰 등)이 여전히 소폭의 성장세를 보임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1) 13대 주요 수출품목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3,852 (67.1)	6,220 (61.5)	8,086 (30.0)
자동차(741)	604 (101.3)	593 (98.2)	690 (16.4)
선박(7461)	262 (118.3)	1,109 (323.3)	1,094 (-1.4)
철강제품(61)	3,825 (113.0)	4,949 (29.4)	5,933 (20.0)
석유화학(21)	6,747 (30.8)	10,003 (48.3)	12,656 (26.5)
섬유류(4)	3,976 (3.2)	4,045 (1.7)	4,509 (11.5)
컴퓨터(813)	6,269 (50.3)	8,291 (32.3)	10,363 (25.0)
무선통신기기(812)	5,037 (29.6)	5,182 (2.9)	5,787 (11.7)
반도체(831)	6,707 (41.0)	11,012 (64.2)	15,148 (37.6)
가전제품(82)	1,910 (36.5)	2,664 (39.6)	3,491 (31.0)
타이어(3203)	28 (-9.7)	28 (0)	30 (7.1)
플라스틱제품(31)	707 (11.2)	933 (32.0)	1,142 (22.4)
자동차부품(7420)	998 (341.1)	1,682 (68.5)	2,373 (41.1)

**(2) 기타 품목 총괄표 (B)**

**① 중국**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석유제품(133)	1,717(46.5)	2,552(48.6)	3,861(51.3)
전자관(832)	1,127(-0.9)	1,019(-9.6)	924(-9.3)
전선(850)	397(55.2)	639(61.2)	965(51.1)
건설광산기계(725)	607(100.3)	463(-24.3)	356(-23.1)

② 홍콩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금은 및백금(111)	1,609(2,107)	2,644(234)	1,980(-25)
석유제품(133)	606(-10)	1,055(66)	1,120(6)

③ 대만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건전지 및 축전지(835)	152(83.8)	156.6(3.0)	158.5(1.2)

(3)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중국>

① 자동차 부품

-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수입자동차의 쿼터관리제도가 철폐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관세율도 25%까지 인하할 예정임
  - 중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WTO 가입 전인 지난 2001년 70-80%에서 금년도 30%대 선으로 낮아졌고 쿼터량도 연간 15%증가하여 왔으며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2006년에 이르러 10%대까지 낮아지게 됨
- 현재 중국은 자동차 관련 주요부품인 엔진, 변속기, 연료분사시스템 등 고부가 가치제품은 모두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업체는 주로 음향, 내부장식 등 제품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을 우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긴축정책에 돌입하면서 투자를 통제하는 한편, 신규대출을 잠정 중단해오고 있음
- 금년 10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17만7천400대로 전년대비 7.8% 감소, 지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 ② 철강제품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수입 시장으로 8%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매년 크게 늘고 있음
- 고정자산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 등으로 중국의 생산력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대형 프로젝트의 지속으로 당분간 철강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감소와 신규프로젝트의 일시 중단, 그리고 최근 금리인상 조치에 따른 일부 경기 둔화로 철강수요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 철강수요가 많은 △기계제조 △유색금속 △플라스틱제조 △자동차 제조업 △고무제조 등 업종의 경기지수 하락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철강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③ 반도체

- 중국의 전자 및 I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 제품의 수출증

가로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ASSP, 메모리를 중심으로 2009년까지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ASSP(38.1%)가 메모리(22.9%)와 함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됨
- PC, 휴대폰 등 주요 반도체 수요기기의 중국내 수요가 두자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 및 정보통신업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제품별로 PC, 휴대폰 생산의 확대로 D램, 플래시 등 메모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 전망됨
- 특히 향후 가전분야의 디지털 TV 보급과 통신분야의 3G 도입 등 신규 반도체 수요분야의 창출이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음

#### ④ 컴퓨터(813)

- 중국 전자제품시장 규모는 496억달러(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노트북컴퓨터와 디지털제품 수요에 힘입어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노트북컴퓨터시장은 25~3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카메라시장도 35%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CCID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2,756억위안(약 41조 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 늘었고, 올해는 4,0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음

- 중국인터넷정보센터(互聯網絡信息中心. CNNIC)에 따르면 지난 1997년 62만명이던 네티즌 수는 금년 상반기 이후 8천700만명을 넘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네티즌 보유국가로 부상

## ⑤ 무선통신기기

- 중국의 휴대폰 수입시장은 2002년 233.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8.4%의 증가세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금년 들어 중국 휴대폰 수입시장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상반기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산 제품이 급격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시장의 48%를 점유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만, 핀란드, 일본,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음
  - 특히 한국, 대만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감한 반면, 핀란드와 프랑스산 제품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휴대폰 시장의 축소에 따라 중국 휴대폰 수입시장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휴대폰(지난해 기준 72.1% 비중)의 물량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휴대폰 시장의 과잉공급과 경쟁격화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음
  - 금년 중국 휴대폰 시장은 왕성한 수요를 보이며 판매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7000만 대로 사용자 보급률은 25%에 이를 것

으로 예상

-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Gartner社는 향후 3~5년 내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수는 평균 약 15%의 증가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금년 들어 멀티미디어, 카메라 등 첨단 기능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며 중국 토종 브랜드의 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 브랜드의 시장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컬러휴대폰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카메라폰도 보급직전에 직면하고 있고 3G 휴대폰도 조만간 등장할 예정임

## <홍콩>

### ① 가전기기

- 2004년 상반기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1-10월까지도 653백만불로 71%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중국의 디지털 가전제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여 한국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LG전자의 홍콩 내수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삼성과 함께 한국산제품에대한 인지도 상승을 선도하고 있음
- 고급전자제품 수출이라는 차별적 수출증가전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MP3, 냉장고 등에 대한 홍콩시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냉장고, 난방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수출은 하락세를 보임. 이러한 추세는 200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② 반도체

- 중국 내 전자 및 IT시장 등 반도체 수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휴대폰 등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산업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TV보급과 홍콩내 3G휴대폰서비스의 범용화, 디지털제품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짐.
  
- 그러나, 전체적인 산업호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세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동향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음. 대만업체들의 양산규모의 대대적인 확대가 반도체 시세하락을 촉진하고 있음. 기존 주력제품의 물량확대, 신규 경쟁력있는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③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최근 중국 내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동반투자를 통한 현지조달이 증가추세에 있어 중국의 홍콩을 경유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1월~10월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5.3%, 53.7%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중국 광둥성 경제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생산 전문 클러스터를 확보하기 위한 성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유치홍보를 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의 경우 일부 한시적으로 홍콩을 경유한 재수출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나 장기적으로는

수출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대만>

### ① 반도체

- 시장조사기관인 The Information Network 의 최근발표에 따르면, 2005년 반도체 원료시장 성장 7.7%(140억달러 창출). Bulk silicon 역시 계속 성장세 거듭하여 2005년 8.8% 성장이 예상됨

- 업계에서는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 경기 IT 산업 경기 둔화설과 반도체 공급과잉설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② 무선통신

- '05년 핸드폰 시장 6.65억 개로 전년대비 5%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대만 POLARIS 증권사 '04년 10월 발표자료 근거)

- 대만 시장 점유율 소폭 증가추세:

- ▷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의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
- ▷ 기타 다른 업체들은 저가격, 고품질 제품으로 시장공략

- 반면, Alcatel 대만 지사장은 내년 대만 전체 핸드폰 판매가 2004년도의 630-650만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대만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음

### ③ 컴퓨터

- IDC, 업계, 디스플레이서치사는 내년 세계 노트북(NB) 생산량이

금년대비 19.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단, 대한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주변기기, CPU 등의 부품들은 대만이나 중국제품에게 가격경쟁력 상실. 현재 일부 소프트웨어의 수출만 다소 증가추세)

#### ④ 플라스틱

- 내년 상반기동안 국제 원재료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대만 수출 동분야 제품은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삼자무역형태라는 점이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7일 거시경제부처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16개 대표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업종별 경기전망에 관해 설문조사결과, 내년 경기지수 하락업종으로 플라스틱을 선정한 바 있음

#### ⑤ 자동차

- WTO 가입이후, 국내 조립차에게 주어졌던 화물세 우대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됨
  - 이렇게 될 경우,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대만 국내 조립차 업계는 내년까지 신차 출시를 미루고 있어 내년 상반기 동안 신차들이 대거 출시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강철가격을 비롯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자동차업계는 내년에 완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⑥ 자동차 부품

- 2004년 한국 자동차 대대만 수출증가. 향후 AM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WTO 가입이후, 국내 조립차에게 부여하였던 화물세 우대혜택 폐지. 수입차의 비중확대 예상
- 그런, 현지 조립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동반 감소할 수도 있음

## ⑦ 일반기계

-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 10%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내 반도체(DRAM 위주) 생산량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대만 공업국 동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면세우대혜택 계획추진
- 그러나, 세계 경기 IT 산업 경기 둔화설, 반도체 공급과잉설, LCD 패널 공급과잉예상(모건스탠리 '04년 10월 발표자료근거) 등의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6. 중남미 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05년 중남미 경제 3.7%~4.0%대 안정 성장궤도 진입
  - 브라질(3.5%), 멕시코(3.5%), 아르헨티나(5.0%), 칠레(7.0%) 등 대 중남미 주력 수출시장 경제 안정화 지속
- 수출호조 등 경제안정 성장에 따라 '05년 수입수요 동반 증가
  - 달러약세, 수출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브라질 등 주요국 환율은 하향 안정세 유지
  - 중남미 수입 전망 : ('04) 3,860억불 → ('05) 4,200억불(8.8% 증)
- '03년 50년만의 경상수지 흑자 시현 후 각종 수지 흑자폭 확대 전망
  - 경상수지 : ('03) GDP 0.3%(560억불) → ('04) GDP 0.8%
- 11월 우리 정상의 남미순방 효과 가시화
  - 수출보험공사의 아르헨티나 선박 건조 프로젝트 지원 및 수출입 은행의 대 브라질 1억불 및 아르헨티나 3천만불 규모 전대차관 공여 등 순방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기계류 등 수출여건 양호
  - '05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답방 유력시 양국간 경험확대
- '05년 미주개발은행(IDB) 회원국 가입

- 연 40~80억불 규모 대형 프로젝트 참여 가능
- 한-칠레 FTA 발효 효과 가시화
  - '04년 4월 이후 대 칠레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휴대폰 분야에서 분야별로 최대 200% 이상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이후 관세율 완전 철폐 효과 본격화
  - 특히, FTA 이후 수입 관세가 6%에서 평균 4.6%로 인하되면서 향후 수출 증가에 기여 예상
- 아르헨티나 경제회복 가시화 및 베네수엘라 정정불안 진정 등 역내 정치·경제 안정화 추세
  - 아르헨티나, 외국 민간 채권단과의 외채문제를 '05년 중 타결할 경우 디폴트 상황 해소 및 이 경우 수출보험 부보 재개로 수입상들의 외상수입 증가 가능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 승리로 정치안정화 추세
  - 도미니카, '04년 5월 대선 이후 국제 신인도 회복세

## (2) 비관적 요인

- 세계경제 및 교역증가세 둔화
  - '05년도 세계경제 및 교역이 각각 4.3%, 7.2% 증가로 '04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증가세 둔화로 경제성장 및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 가능성
- 중남미 지역주의(regionalism) 확산으로 인한 차별주의 심화

- '05년 FTAA, EU-Mercosur FTA, CAFTA, 미-안데안 FTA 등 중남미 지역내 FTA 체결 확대
  - '05년 4월 일-멕 FTA 발효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불가피
  - 부시 대통령 재선으로 CAFTA, 미-안데안 FTA 체결 유력
- 멕시코, FTA 미체결국 정부입찰 참가 제한 및 멕시코 국내산 제품 이용 비율 명시
  - 멕시코석유공사(Pemex) 정유설비 입찰 등에서 FTA 체결국으로 자격요건을 제한
  - 또한, 입찰시 멕시코 국내산 제품 이용 비율을 전체 입찰가의 25% 정도로 명시하고 있어, 국내 기업 입찰시는 물론 한국산 수출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미 이행시 미준수 금액의 약 8.3%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자유무역협정국간의 역내교역 확대

○ 中國과 중남미 주요국의 관계개선 급진전 추세

- 中-브라질간 3년내 교역액 2배 확대 및 200억불 투자 합의
- 中-멕시코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관세협정 등을 추진 중이며, FTA 체결 검토 등 최근 양국간 통상 및 투자관계 급진전
- 中-아르헨티나간 정상외교 및 원전 공동개발 등 경험확대 등

○ 비관세 장벽 등 대 중남미 통상환경 악화

- 페루, 직물에 대한 임시 세이프가드 발동
- 아르헨티나, 한국산 PET 덤핑 혐의 조사
- 코스타리카,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강화
- 코스타리카, 정부 조달비리로 '05년 공공부문 투자위축 등
  - 10월 통신, 의료부문의 조달비리 폭로로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 정치 불안정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

- 페루 툴레도 정부 '04.11월 현재 지지도 10% 수준에 불과, 후지모리 전 정부에 비해 경제 관심도 저도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중남미	8,802 (-0.7)	10,300 (17.0)	11,227 (9.0)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경기회복 및 수출증가로 자본재, 부품소재류 수입수요 증가
  - 브라질, 648개 기계류 공산품세(IPI) 인하로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수출확대('04년 940억불, 28.6% 증) 지속으로 부품소재 등 원부자재 수입 증가
  - '05년 상반기 CAFTA 발효시 설비투자 확대
  - 아르헨티나, 평가절하 후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산업활동 증가로 원부자재 수입 증가세 및 산업계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계 플랜트 신규 도입 가능성 다대
- 플랜트, IT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 증가
  - 고유가로 인한 석유화학 설비 현대화 추진,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발전설비, 전자정부 시스템 등 발주 확대 전망
  - IDB 프로젝트 및 EDCF 프로젝트 참여 유망
  - 페루 최대 국책사업인 Camisea 프로젝트의 경우 가스관 등 관련

품목의 수입 대폭 증가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 중)

- 도미니카, '04. 5월 신정부 출범 후 전력, 교통, 건설분야 등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로 프로젝트 수요 증가
- 과테말라, 국제공항, 동서횡단철도건설, 도심순환도로 건설 등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 관세인하 및 통관절차 간소화

- 멕시코, 비 FTA체결국 제품 관세 인하 예정
  - '05년 초 관세조정, 반덤핑 관세 축소, 무역절차 간소화 등을 발표 예정이며, 특히 자동차, 섬유, 의류, 신발, 철강 부문 관세를 전면 검토, 인하 예정
- 페루, 선진적 검사제도 폐지 등 통관절차의 개선 움직임
  - 페루정부는 사상 최초로 수출 100억불 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무역이 페루의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인식 팽배

○ 한국상품에 대한 국가 및 브랜드 이미지 호전

- 멕시코, 가전제품 및 휴대폰 등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도 기대
- 페루, 월드컵 등으로 인한 한국상품 이미지 호전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본제품에 비하여 압도적인 우위 등

## ② 어두운 면

- 일-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상품의 경쟁력 약화
  - '05년 4월 일-멕 FTA 발효시 상대적으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PDP TV 등 일부 우리상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
  
- 중국의 대 멕시코 시장진출 여건 호전
  -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의 공격적인 대멕 시장진출 가속화로 중국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한국제품의 대멕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또한, '05년부터 500%에 달하는 중국산 의류, 신발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현실화시킬 예정이므로, 중국산 관세인하에 따른 한국산 가격경쟁력 약화 예상
  
- 브라질, '05년 물가안정을 위해 콜 금리 인상 가능성
  
- 브라질의 고관세 정책 유지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하락
  - 브라질 경기회복과 함께 브라질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이 고관세정책(예 : 자동차 관세 35%)을 지속하고 있어 완제품 수출경쟁력 하락 불가피
  
- 브라질 등은 수출진흥을 위한 평가절하 가능성
  - 브라질의 수출 드라이브를 위한 저혜알화 정책 구사에 따른 평가절하 가능성
  - 아르헨티나 페소도 브라질 헤알화 움직임에 민감하여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환율이 3.1페소선을 넘어서게 될 경우 수입이 둔화 예상

○ 베네수엘라, '03. 2월초 시작된 외환통제의 지속 실시

- 외환통제는 외환보유고 부족이 아닌 정치적 요인(쿠데타 주도 세력 등 반대파에 대한 압박, 외환통제 해제시 급격한 외환유출 우려 등)에 의해 지속

**(3) 종합의견**

○ 우리나라의 '05년 대 중남미 수출은 주력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등의 경기회복세 지속 및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113억불 예상

- '04년 대 중남미 수출은 103억불(17.0% 증)로 사상 최초로 1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05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세(4.3%) 및 교역증가율(7.2%) 둔화, 고유가 유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
- 국별로는 경기회복세의 아르헨티나(25%), 베네수엘라(25%)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 무역관 주재 11개국의 수출증가율은 11.4% 증가가 예상되나 부채지역은 1.9% 증가에 그칠 전망
- 품목별로는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수출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쿼터폐지, 멕시코의 대중국 반덤핑관세 폐지 등으로 섬유류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 (1)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297	-18.2	345	16.0	362	5.0
자동차(741)	776	-9.8	1,086	40.0	1,216	12.0
선박(7461)	2,257	-4.5	2,300	1.9	2,323	1.0
철강제품(61)	201	-16.4	292	45.0	350	20.0
석유화학(21)	524	44.4	509	-3.0	534	5.0
섬유류(4)	950	-19.5	1,035	9.0	932	-10.0
컴퓨터(813)	573	35.5	521	-9.0	677	30.0
무선통신기기(812)	814	15.5	1,383	70.0	1,660	20.0
반도체(831)	33	210.8	77	130.0	111	45.0
가전제품(82)	849	10.9	1,231	45.0	1,477	20.0
타이어(3203)	127	-6.8	125	-2.0	131	5.0
플라스틱제품(31)	107	17.9	126	18.0	133	5.0
자동차부품(7420)	157	0.3	204	30.0	228	12.0

### (2) 기타 품목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전자관(832)	286	-15.6	429	50.0	493	15.0
유리제품(243)	91	17.3	158	75.0	190	20.0
정밀화학제품(22)	120	-7.8	143	19.0	150	5.0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75)	79	12.9	95	20.0	106	12.0
정지기기(842)	35	-26.8	36	2.5	37	5.0

### (3)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① 일반기계

- 브라질, 경기회복 및 수출확대에 따라 기계 및 설비 구매 확대

- '04년 648개 기계장비에 대한 공산품세(IPI)를 인하조치(643개 품목 : 5% → 3.5%, 5개 품목 : 12% → 8% 인하)로 기계장비 수입 수요 확대 전망

○ 페루, 섬유기계 수요급증

- 미국의 페루산 섬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로 페루 섬유 산업이 연간 30% 이상 성장하여 섬유기계 수요 급증
- 최근 발효된 섬유류 임시 세이프가드의 영향도 페루의 섬유제조 업체가 완제품 보다는 기계를 수입하여 현지생산을 촉진

○ 아르헨티나, 건설중장비 수요증가

- 정부의 주택건설 계획과 호화주택 건설 붐에 따라 건설중장비 및 유지부품 수요 증가

○ 과테말라, 건설장비, 기계류 등 수출호조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대, 경제안정에 따른 기업의 설비 투자확대 예상으로 건설장비, 기계류 등 수요증가

○ 도미니카, 자본재 관세 인하계획 등으로 기계류 수요증가

- '04년 정권교체이후 정부발주 프로젝트 활성화로 발전설비용 기기, 건축자재 생산기계, 섬유 제조기기,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계 등을 중심으로 안정된 증가세
- 또한,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에 대한 관세 인하 움직임

## ② 자동차

- 멕시코, 현대자동차의 아토스, 베르나 등 신규 모델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2005년 수출 확대 기대
  - 단, 무세가 적용되는 크라이슬러 위탁판매 한계 및 FTA 미체결 국 자동차에 50%에의 고관세 부과로 수출증가 한계
- 칠레, 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및 한국 자동차 인지도 상승으로 '05년에도 꾸준한 판매 증가예상(칠레)
- 페루, 대우와 현대가 5대 브랜드에 포함될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대부분 중고자동차 수입 중
  - '05년부터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법안이 검토되고 있어 동 법안 통과시 페루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 예상
- 파나마, '05년 자동차 연간 판매량 1만8천~2만대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도미니카, '05년 대중교통 근대화 프로젝트 입찰추진 가능성
  - '02년 입찰에서 현대자동차 낙찰

## ③ 선박

- '03년 이후 세계 해운시황 개선 및 이라크전 종식, 국제정세 안정화 등으로 활발한 수주 기대
- 파나마, 편의국적선 등록 국가가 바하마 등 다른 국가의 세제 혜택 확대로 다른 국가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④ 철강제품

- 멕시코, 경기회복세에 따른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 및 수출증가로 한국 주력 철강제품인 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강판 수요 증가
  - 일-멕시코 FTA 발효시 특수강은 즉시 무관세 제품에서 제외되어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철강업체의 수출호조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자동차 등 강 수요업체의 수입관세 인하 요구 및 철강 수입 구매 확대 계획
- 페루, 최대 국책사업인 Camisea 프로젝트의 여파로 파이프 등 철강제품 수입 급증세

#### ⑤ 석유화학

- 멕시코 국내 화학제품 수요 급증으로, 한국산 화학제품의 대멕시코 수출 증가세가 200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 멕시코 정부는 국내 화학제품 생산 증가를 위해 EL FENIX 등 대규모 화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2008년 이전까지 멕시코의 화학제품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⑥ 섬유류

- 페루, 최근 대 중국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로 우리직물의 단기적 수출 급증 추세
  - 임시 세이프가드 기간인 200일로 중국 측은 페루와 FTA 체결

## 모색 중

- 파나마, 90년도 콜론지대를 통한 한국산 폴리에스터 직물 수입량이 30%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가격경쟁에서 중국, 대만산에 밀려 수입량도 5% 미만으로 하락
- 우리의 대 과테말라 수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 특히 직물(편직물, 인조직물, 면직물, 모직물 등) 수출이 약 75%를 점유
  - '05년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섬유쿼터해제 등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으나 단기적으로 섬유쿼터해제를 통한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예상
- 도미니카, '05년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저가 공세 및 미국-도미니카 FTA 발효시 원산지가 미국 및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인 원자재 사용 증가 예상

## ⑦ 컴퓨터

- 아르헨티나, 경기 회복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용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시점으로 수요증가

## ⑧ 무선통신기기

- 멕시코, '04년 핸드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멕시코 무선통신 시장의 79%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통신회사 Telcel사의 '05년 GSM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한국산 GSM 단말기 공급 확대 지속
  - 소비자의 휴대폰 교체 주기 감소도 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

- 브라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불 휴대폰 사용 확대, GSM 통신사업자 신규 진출에 따른 판촉활동 강화, 가계소득 증가로 휴대폰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칠레, Nokia, Motorola 등 주요 경쟁제품이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 등에서 생산, 무관세로 수입되어 국산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취약했으나, FTA 발효로 칠레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전망. 특히 FTA 발효 이후 220% 이상 수출이 증가하는 등, 휴대폰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성장세를 탈 것으로 판단됨
- 아르헨티나, 현지시장 점유율이 미약하던 삼성이 본격적으로 휴대폰 시장 공략을 꾀하며 경쟁사들과 신모델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저가 제품 신규상표들도 생겨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큼. 한편 현지시장에서 무선 인터넷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 기기 출시 중
- 페루, 최근 핸드폰 가입자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확대를 위해 한국산 무선통신회사의 마케팅 강화
  - 아날로그 제품에서 디지털 제품으로의 전환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카메라폰 등 다기능 제품 위주로 페루시장에 붐이 일어날 가능성

## ⑨ 반도체

- 브라질, IT시장 회복 및 수출확대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수요의 빠른 증가세

## ⑩ 가전제품

- '04년 경기회복세에 따라 대형 TV, 냉장고, DVD 등 가전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 기록 전망
  - 단, 일부 PDP TV 등 고급 전자제품의 경우 일-멕시코 FTA가 발효되면서 일본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면 대멕시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 브라질, 경기회복 지속 및 소비자구매력 증가에 따라 가전기기 수입수요 확대 전망. 특히, 현지에서 미생산되는 고가 가전기기 수입수요의 빠른 확대 예상
- 페루, 한국산 가전제품의 점유율은 '04년 50% 내외에서 '05년 60% 이상 예상
  - 단, 멕시코, 중국 등 현지공장에서 조립된 삼성, LG 제품 수입되어 수출실적과 차이 있음
- 파나마, TV, PDP는 NDP(플랫 TV등) 계열의 고급품 위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에어컨은 신모델 출시로 고급제품 시장 진출 확대

## ⑪ 타이어

- 멕시코 경제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타이어 12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5% 종가세로 인하함으로써 4분기부터 대멕시코 수출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어, 2005년에는 본격적인 수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멕시코는 2004년 1월 1일부터 자국 타이어 산업보호조치

의 일환 및 FTA 미체결국 타이어 수입억제를 위해 타이어 12개 제품에 대해 종량세 35%를 적용 실질관세율이 25-80%에 달해, 상반기 대맥 수출물량이 전년 대비 10%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 급감 경험

## ⑫ 자동차부품

- 페루, 은행택시 중 한국산 티코 등 경차가 50% 정도 차지하며 차가 낡아 부품 수요가 많음
  - 이들 승용차는 중고차로 수입되어 소모품뿐 아니라 엔진등 주요 부품 수요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몇년간 꾸준한 증가세 예상
- 파나마, 중미 전체적으로 한국 중고차 사용 증가로 콜론을 통한 한국산 자동차부품 거래 증가
- 코스타리카, '04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90만대 중 10만대가 한국차량으로 한국산 부품수요 유발

## 7. CIS 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 러시아

#### ○ 러시아의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인한 수입시장 규모 확대

- 금년까지 6년 연속 고속 경제성장세
- 내년도에도 큰 변수가 없는 한 경제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4년 6.9%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에도 6.3% 전망 등 6%대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경제성장으로 제조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시장도 매년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 확대되고 있음.

#### ○ 고유가 행진 지속전망

- 현재 지속적인 고유가로 재정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올해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대를 돌파하였으며, 재정흑자도 당초 목표치인 29억불을 훨씬 상회하는 174억불 규모 달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등 고유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제운용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임.
- 내년도도 고유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 편성시 1배럴에 28불선에 정부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 경제운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WTO가입을 위한 법령 및 체제정비 지속

- 경제활동의 투명성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5월 EU와의 WTO 가입 협상 타결후 주요 국가들과 쌍무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큰 이견이 없는한 2006년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과 러인들의 구매력/구매패턴 일치

- 기존 대러수출을 이끌던 PET, 가전 등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등의 대러 수출 급증
-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브랜드가치가 워낙 높은데다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호조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 주재국 경제여건 호조 지속

- 주재국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한국상품 인지도 상승

- 한국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중급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중국, 터키 등 저급품에 식상한 바이어 및 소비자들이 중급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경공업 진흥정책

- 산업설비, 원부자재 수요 증가

- 건설붐 지속

- 사무실 및 주택 건축 및 개보수 붐에 따라 관련 자재 수입 확대

▶ 우즈베키스탄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 주재국의 대우자동차 조립 생산 목표 상향 조정
- 한국 기업들의 대우즈베키스탄 진출 증가

▶ 카자흐스탄

- 원유·가스 산업 등의 호조에 따른 고성장 기조 지속 전망
- 2005-2007 주택건설프로그램의 본격추진에 따른 관련 수요 급증
- [산업혁신전략]에 따른 제조업 육성 정책의 본격화로 인해 설비 및 원부자재 수요 증가
- 전국민적인 경제에 대한 자신감 고조로 소비심리 증폭 전망
  - 현지화의 대 달러화 강세 지속에 따른 구매력 상승 효과 기대

(2) 비관적 요인

▶ 러시아

○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 러시아 정부 및 각종 대외기관이 항상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상기 낙관적 요인에 명시했다시피 전반적인 예산운용 자체가 유가에 달려있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가 급락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지속적인 자체 산업구조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와 같은 수준의 고유가를 예상키 어려웠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1배럴당 28불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악재로 나타날 전망이다.

○ 외교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일부 산업군 발전 속도 저해 요인 상존

- WTO 가입을 위한 쌍무협상을 통해 가입을 위해 미국, 중국 등에 다양한 형태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로인한 러시아내 일부 산업군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교토 의정서 발효 등 각종 국제조약 가입시 현지 찬반 의견이 양분됐던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발효시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독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

- Gazprom, UES 등 소위 자연독점기업 구조조정 필요 (WTO 가입 협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해야할 입장)
- 그러나 이들 자연독점기업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 전기, 대중교통 독점 공급업체로서 구조개혁시 막대한 공공요금 인상 효과를 야기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물가정책 및 국민복지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 우크라이나

### ○ 편법 및 탈법교역 확산

- 편법통관 및 밀수의 확산으로 정상적 방식에 의한 우리기업의 진출 저해

### ○ 경쟁국 진출 확대

- 아국 수출 주력품목인 직물, 가전제품의 중국산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라 아국산 제품과의 경쟁 치열
-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의 우크라이나 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공략 강화

### ○ 원화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

- 가격이 중시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제품의 수출에 타격 예상.

## ▶ 우즈베키스탄

### ○ 주재국의 외환상황 악화

### ○ 밀입국의 성행으로 정식 수입상 피해 증가

### ○ 주재국의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

## ▶ 카자흐스탄

### ○ CIS 역내 5개국간 관세동맹의 본격발효에 따른 역외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우려

### ○ 인접 경쟁국인 중국의 인해전술식 시장침투 및 지배력 강화 전망

- 점진적인 현지 제조업의 회생에 따른 저가 생산품 공급의 확대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CIS	2,578 (54.6)	3,671 (42.4)	4,203 (14.5)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 러시아

-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 따른 주요 부품(원자재) 수요 확대
  - 한국야쿠르트와 오리온의 라면공장, 오리온의 제과공장 등이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현지 생산중이며, 가전 등 타 제품군도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주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대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가전 제조사인 Rolsen의 경우 한국업체의 브라운관 등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음.

##### ▶ 우크라이나

- 가격경쟁력 보유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 및 부품 수요 증가
- 주재국 식품가공 등 경공업 발달에 따른 화학원자재 수요 증가

- 가전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판매 강세
- 우크라이나의 건설붐으로 인한 중장비, 건축자재 수요 증가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은 대우자동차 조립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인 바, 대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약 15-20% 증가될 전망이다.
- 우즈베키스탄의 합성수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2005년에도 동품목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약 20-30% 증가될 전망이다.
- LG 전자는 우즈베키스탄 파트너를 통해 가전제품의 현지 조립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 바, 관련 부품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 200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공업 발전을 위해 기계설비 및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제품 수입 증가 전망.

#### ▶ 카자흐스탄

- 주재국 정부 및 IMF, ADB 등 국제경제기구,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을 9% 상회할 것으로 예측
- 일반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론,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내구성 고급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 시장 지속 확대
- 주택건설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건설중장비, 전자재, 관련 서비스

## 수요 증가 예상

-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설비 및 원부자재 수요 증가

## ② 어두운 면

### ▶ 러시아

- 경쟁강화에 따른 대러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

- 러시아 경제 호황으로 인해 아국업체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유명 업체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예를들어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의 현지 생산 가능성이 연일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아국 업체의 수출규모 확대는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나, 점유율 확대 부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2003, 2004년과 같은 50%에 가까운 수출 증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우크라이나

- 중국, 인근 동구권국가, 터키산 제품의 진출확대 및 중급품 시장 잠식
- 인근 유럽국가들의 대우크라이나 투자 증가로 인한 우크라이나 내 소비재 생산증가
- 아국 수출 주력품목인 직물, 가전제품의 중국산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시장 잠식

## ▶ 우즈베키스탄

- 환율단일화가 진전되면서 달러화 대비 숨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어 수입 감소 초래 예상됨.
- 외환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어 수입 감소가 예상됨.
- 밀수품에 대한 시장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접경 국가 (중국, 카자흐스탄 등)를 경유한 밀수가 끊이지 않아 정규 수입상들의 수입활동이 약화가 예상됨.

## (3) 종합의견

- 러시아는 '98년 모라토리움 이후 각종 기관으로부터 경제운영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6-7%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에 따라 대외교역규모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연간 20%대 수준의 증가율 기록 전망
- 러시아의 수입증가를 주도하는 품목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임.
  - 기계/설비류 : 자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설비 뿐만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 수요도 상당하나 러시아의 기계제작산업이 자금/기술면에서 낙후되어 있어 수입의존도 큼.
  - 중산층용 소비제품 : 자동차,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등이 대표적인 제품임.
- 우크라이나는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인지도 지속 상승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가격경쟁력 상실로 고전

하고 있는 섬유류의 수출감소분을 상쇄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출 확대 추세 유지 전망

- 또한, 대통령선거(11.21)를 계기로 현지화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일기 시작한 내구 소비재 구매붐이 당분간 지속 예상
-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들어 숨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이며, 미국 및 서방의 경제 자유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부품업체 포함)의 수입 부분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 가격인하 및 매출 증대에 따라 조립생산용 부분품의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즈베크 정부의 대우자동차 조립 생산 목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부품의 수출 증가 예상.
- 카자흐스탄은 독립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형 시장경제의 실천으로 모범적인 경제운용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다 최근 5년째 실현된 고성장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의 주력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많은 수출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1) 13대 주요 수출품목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150.2 (45.1)	235.4 (56.9)	275.8 (17.2)
자동차(741)	292.4 (198.5)	645.9 (120.9)	839.7 (30.0)
선박(7461)	102 (449.8)	154.1 (51.1)	228.2 (48.1)
철강제품(61)	32.2 (153.6)	42.3 (31.4)	48.6 (14.9)
석유화학(21)	426.4 (37.9)	529.5 (24.2)	574.5 (8.5)
섬유류(4)	262.7 (12.6)	286.3 (9.0)	314.9 (10.0)
컴퓨터(813)	28.1 (-21.4)	24.2 (-13.9)	24.2 (0.0)
무선통신기기(812)	222.2 (173.2)	315.2 (41.9)	378.0 (19.9)
반도체(831)	0.7 (-58.1)	1.2 (71.4)	1.2 (0.0)
가전제품(82)	261.7 (41.7)	397.4 (51.9)	556.4 (40.0)
타이어(3203)	5.3 (-6.3)	8.4 (58.5)	12.9 (53.6)
플라스틱제품(31)	52.2 (85.2)	68.3 (30.8)	85.2 (24.7)
자동차부품(7420)	192.7 (95.6)	337.8 (75.3)	456.0 (35.0)

(2) 기타 품목 총괄표 (B)

▶ 러시아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면류(0164)	46 (2.0)	49 (6.5)	51.5 (5)
음극선관(8321)	18 (86.4)	32 (77.8)	54.4 (70)
커피류(0151)	24 (46)	30 (25)	36 (20)
소스류(0143)	20 (31.3)	25 (25)	30 (20)
윤활유(1336)	15 (41.8)	20 (33.3)	25 (25)

▶ 우크라이나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 잠정(증감율)	2004 전망(증감율)
전자관(832)	13.4 (15.2)	10.0 (-27.5)	8.0 (-20.0)
정밀화학제품(22)	4.5 (30.5)	5.5 (22.2)	7.0 (27.2)
유선통신기기(811)	2.9 (26.7)	2.3 (-20.6)	2.0 (-13.0)
기타화학공업제품(29)	1.9 (15.7)	1.7 (-10.5)	2.0 (17.6)
전자응용기기(814)	1.2 (164.3)	1.5 (25.0)	2.0 (33.3)

(3)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① 자동차

▶ 러시아

- 2003년 중고 수입차 관세 대폭 인상후 그동안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대량 유입되던 중고차 경쟁력 상실
- 한편 러시아 국산차량의 경우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음.
-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차 판매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러시아인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고가임
- 한국차의 경우 기아, 현대 양사 모두 러시아에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러시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작년 이후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음. 따라서 내년도에도 두 자릿수 수출 성장을 기대됨.

▶ 우크라이나

- 주재국 경기회복 및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외국산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또한 증가

▶ 우즈베키스탄

- 대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관세가 올라 향후 증가세가 감소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

- 국제시장에서의 잇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성과제고가 카자흐스탄 시장에도 이어질 전망
- 아울러 현지 달러의 유통망 확충,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수요가 급속히 팽창될 것으로 전망
- 단, 다소 주춤했던 현대자동차의 화재사고차량의 카자흐스탄 내 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우려

② 무선통신기기

▶ 러시아

- 최근 수년간 러시아 이동통신 시장은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인구 1.5억의 러시아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핸드폰 보급율은 아직 낮은 관계로 내년도에도 보급율은 지속 증가하겠지만 수출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도에도 한국산 무선통신기기의 판매는 호조를 보이겠지만 수출증가율은 금년도 잠정치인 1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 주재국 이동통신가입자 및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른 휴대폰, 모니터 등 IT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

▶ 우즈베키스탄

- 현지 이동통신 가입자(약 39만명) 와 인터넷 가입자 수(약 60만명)가 점차 증가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요도 증가. 잠재 수요가 막대하나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입보다는 중국 등으로부터 우회 수입이 증가하여 통계수치 증가는 실적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카자흐스탄

- 가장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이동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움직임과 함께 신기술을 탑재한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③ 석유화학제품

▶ 러시아

-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수출품목인 PET레진의 경우 러시아 소비 시장 활황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수출 증가 기대됨.

▶ 우크라이나

- 주재국 내수 증가, 특히 건축경기 활성화, 식품가공산업 발달에 따라 PET레진, PVC 시트 등 합성수지 수요 증가
- 원화 강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의 가격 대비 품질 양호로 수출호조가 지속될 전망

▶ 우즈베키스탄

-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나, 주변국가로 부터의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증가세가 감소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

- 점진적인 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폴리에스터수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기대됨

④ 일반기계

▶ 러시아

- 러시아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기계류 수요 증대
-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판매 증가 전망.

▶ 우크라이나

- 주재국 경공업 진흥정책에 따른 산업설비 및 기계 수입수요 증가

- 주재국 건축경기 활성화, 식품 및 가공산업 발달에 따른 건축자재, 식품 생산 및 가공설비의 수요가 증가

- 쇼핑백, PVC 시트 등 소비재 생산설비 수요 증가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크 정부의 경공업 자국 생산 증가 계획으로인해, 한국 기계설비의 대우즈베크 수출 지속 증가.

- 정부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중소형 플랜트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일반기계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

- 제조업 육성에 따른 화학, 주조 등 산업 설비, 건축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붐에 따른 건설중장비에 대한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⑤ 가전제품

▶ 러시아

- 우리나라 제품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군이나, 대러 수출통계에 잡히지 않는 품목으로 실제와 통계간 괴리가 큰 품목임.

- 실제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DVD 플레이어, PDP 등 신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판매 호조 기대

▶ 우크라이나

- 삼성, LG, 대우 등 가전 3사의 높은 인지도, 주재국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한국산 가전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 지속 예상
- 특히, 2004년에 서늘한 일기로 인해 에어컨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나 2005년에 평년과 같은 일기가 될 경우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

- 가전제품 보급률이 낮아 가전기기의 잠재 수요는 많으나 비공식 통관 및 관세가 낮은 여타 국가로의 우회적 수입 증가로 인해, 통계상 수치는 다소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

- 한국산의 성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으로서 변함없는 시장지배력 행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⑥ 직물 및 의류제품

▶ 러시아

- 중국, 터키 등 저가제품의 공세 및 러시아 봉제업의 정체로 인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자리수대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봉제업이 발전하고 있는 데 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 우리나라 주종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의 경우 경쟁국(중국, 폴란드 등)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 하락세
- 직물류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두바이 거상들이 소량오더를 적극 수주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 우크라이나시장 내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여 한국업체 진출을 저해

▶ 우즈베키스탄

- 특히 합성 직물이 주요 수출품목인데, 대부분이 비공식 수입 즉 소위 보따리 장사들에 의해 반입되고 있음. 보따리상에 대한 고관세(70% 간이세율)로 인해 점차 제도권을 통한 정규 수입이 증가하면서 통계에 반영되는 실적이 증가하여 공식 통계상 수출은 다소 증가 예상.
-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내 의류 등 섬유완제품 생산이 시작되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직물 및 합성섬유 수요도 점증 예상

▶ 카자흐스탄

- 원부자재로서의 편직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완제품으로서 여성의류 및 아동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특히, 의류의 경우 품질은 중국산에 비해 월등하면서 가격은 유럽산보다 낮아 틈새 공략에 유리

## 8. 중동아프리카 지역

### 가. 수출여건

#### (1) 낙관적 요인

- 내년도에는 유가가 현재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요 계속증가 및 세계 산유국들의 증산시설 한계로 배럴당 30불 전후로 비교적 고유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금년과 같은 대폭적인 석유수입의 확대는 바라볼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산유국들의 안정적인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도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 투자, 건축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로 인한 수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정국 안정시 대규모 전후 복구 프로젝트 수요발생
  - 내년 1월 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되고 정국과 치안이 안정될 경우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전후 프로젝트 수행으로 수입수요 대폭 확대 (매년 100억불 전후의 프로젝트 발주 예상)
  - 특히 그간의 경제제재 조치 및 전쟁의 와중에서 제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각종 생필품도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수입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4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에 따른 리비아 특수
  - 리비아의 경우 20 여년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서 해제됨에 따라 최근 경제 개혁조치들을 잇달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발전소, 담수화, 통신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 발주 증가 전망

-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산업설비, 기계 플랜트 등의 발주 확대
  - 세계 최대의 공공 조달시장으로 매년 1천억불 이상의 조달 시장 형성
-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GOA)이 당초 2008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회수출을 노리는 해외투자가 활발해져 아프리카지역 경제활성화 전망
  - 특히 섬유 및 봉제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예상
-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안정 및 인종갈등 완화시 IMF, UN등 국제기구의 경제 원조가 강화되고 정치안정에 따른 나이지리아, 수단 등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 (2) 비관적 요인

- 이라크의 치안불안 지속 및 이-팔레스타인간의 갈등심화 등 중동 각국의 치안불안 지속 가능
  - 이라크가 지속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치안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중동 전역에 걸쳐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아라파트 사후, 2005년 1월 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선거를 치를 예정이나 이-팔간의 관계 악화전망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사태 악화시 역시 중동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원유를 비롯한 커피, 차, 동, 철광석, 다이아몬드, 옥수수 등 1차  
 산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축소
  - 중국의 경제성장 조절 등으로 전세계적인 수요 축소시 1차산품 가  
 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아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예상
-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 미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에 따라 세계 각국통화의 강세가 예상되  
 며 특히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 침체로 환율강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수출단가에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품목에 따라 수출  
 이 급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상호간 혹은 EU간 FTA 체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출의 장애 전망
  - 금년중 중동 아프리카 각국간 혹은 GCC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EU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로 중동시장에서 유럽산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터키, 동남아등 후발개도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 가격시장으로 변모하는 중아시장에서 경공업, 중공업제품을 막론  
 하고 중국, 터키,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 국가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가 수출에 걸림돌 작용

## 나. 수출 전망

### (1)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중동. 아프리카	11,710 (13.0)	16,267 (38.9)	19,178 (19.9)

### (2) 전망근거

#### ① 밝은 면

##### ○ 이라크 전후 특수

- 이라크 내의 치안 안정시 재건을 위하여 단기간에 최소 270억불, 최대 560억불의 전후복구자금이 투입될 전망으로 각종 공사 및 조달 프로젝트 참가에 따른 수출기회 확대
- 특히 이라크 민간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로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라크내 한국산 제품의 높은 인기도로 인해서 수출 확대기회가 높을 것으로 전망 (자동차, 휴대폰, 각종 기계류, 일반 소비제품등)

##### ○ 이라크 치안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및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공업화 정책으로 산업설비, 기계플랜트 등의 수입확대

- 특히 최근에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아진 유럽산 대비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이 많아지고 있어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 ○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한국상품 인지도 향상

-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등의 활발한 수출에 힘입어 중동 전역에 걸쳐 한국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고급상품으로 인식전환에 따라 수출기회 확대

○ 유로화, 엔화의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 유로화 및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보다 높을 경우 기존 유럽 및 일본산 제품대비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확대에 유리한 영향도 가능

② 어두운 면

○ 전세계적인 석유수요 축소 및 OPEC의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각국별 생산량 통제시 금년대비 산유국의 재정수입 감소전망

-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각종 프로젝트 발주 연기 및 기계류 수입 감소 가능성 상존

○ 이라크의 안전 및 정정불안 지속 가능성 상존

- 치안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시장개척의 어려움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중국 및 개발도상국가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저가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수출에 지장

- 특히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에 심각한 영향 예상

○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의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의 중아지역 인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하여 중아전체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주문을 중아지역에서 했어도 인도지

는 중아지역이 아닌 곳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동 선박 수출은 중아지역 수출통계에 잡히지 못함)

-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80%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인도지가 타 지역으로 항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전망이 어려움

### (3) 종합의견

- 전반적으로 내년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편임 특히 중동지역의 치안안정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변수로 이라크 및 이-팔레스타인간 치안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금년을 훨씬 능가하는 수출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안보위협 제거시 이라크 진출 러시 및 리비아 진출확대 등으로 제 2의 중동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중동 전역의 투자 및 비즈니스 심리가 회복되어 한국산 제품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타 지역 대비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산업설비관련 각종 장비 및 기계류도 수출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유가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재정수입감소, 이라크의 치안불안 지속, 이-팔, 시리아간의 분쟁악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기본적으로 저가시장인 중동시장에서의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도 예상되어 내년도 수출은 금년대비 19.9% 증가한 19,509백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다.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 ① 13대 주요 수출품목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일반기계(71,72,73,79)	730 (19.7)	948.7 (30.0)	1,280.1 (34.9)
자동차(741)	1,391 (8.3)	2,487.0 (78.7)	2,984.7 (20.0)
선박(746)	2,086 (9.8)	3,928.0 (88.3)	3,278.0 (-16.5)
철강제품(61)	783 (62.1)	939.4 (20.0)	1,056.8 (12.5)
석유화학(21)	747 (44.8)	975.7 (30.7)	1,237.2 (26.8)
섬유류(4)	1,298 (-)	1,234.3 (-4.9)	1,172.6 (-5.0)
컴퓨터(813)	133 (-26.5)	130.0 (-2.1)	130.0 (-)
무선통신기기(812)	1,029 (22.5)	1,444.9 (40.4)	2,087.9 (44.5)
반도체(831)	10 (38.7)	14.7 (41.3)	16.5 (12.2)
가전제품(82)	1,105 (5.4)	1,438.9 (30.2)	2,036.0 (41.5)
타이어(3203)	206 (4.6)	224.4 (9.0)	235.8 (5.1)
플라스틱제품(31)	106 (26.6)	130.0 (23.1)	161.3 (24.1)
자동차부품(7420)	483 (24.8)	499.7 (3.5)	575.7 (15.2)

### (2) 기타 품목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3 실적(증감율)	2004잠정(증감율)	2005전망(증감율)
건설중장비(7251)	120(42.5%)	205(71.2%)	292(42.4%)
가열난방기(7133)	60(24.6%)	180(201.0%)	220(22.2%)
전선(8500)	85(31.9%)	144(69.0%)	230(59.7%)
연초류(0154)	103(98.9%)	128(23.9%)	150(17.2%)
밸브(7512)	43(10.7%)	70(63.7%)	90(28.6%)
펌프(7112)	43(9.6%)	62(45.2%)	78(25.8%)
의약품(2262)	45(77.9%)	54(20.1%)	68(25.9%)
변압기(8421)	16(9.7%)	40(145.4%)	60(50.0%)

### (3)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① 일반기계(매우호조)

- 내년 중동지역의 치안확보시 금년과 유사한 고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로 각국의 SOC 확충 및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각종 산업용 플랜트 및 기계류의 수입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동, 아프리카 각국의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건축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건설장비 및 관련 기계류 수요도 대폭 확대 전망
- 특히 이라크의 치안 안정시 이라크내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제조업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리비아도 20년간 경제제재 조치로 낙후된 각종 사회간접자본 및 제조업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산 기계류 수출에 호기
- 한편 기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기계류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유럽산 제품들이 유로화 강세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2004년도 한국산으로 수입선을 돌리려는 중소바이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기조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원화강세도 동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산 대비 어느정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수출확대에 주요 관건임
-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의 연장(2008년→2015년)에 따른 역내 제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아공의 경우 2010년 월드컵 개최 준비관련 각종 대형 정부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및 기계류 수요도 확대될 전망되는 등 기계

류는 내년도에도 40 %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② 자동차(매우호조)

- 중아지역에 국산자동차의 전반적인 인지도 향상, 환율효과, 가격 대비 성능 우수로 인하여 2004년도에 80%에 육박하는 수출 신장세를 기록함
- 특히 중동 최대의 자동차 수요국가인 이란에서 현대 베르나 승용차의 현지조립 및 현대 미니버스의 조립생산량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득수준이 향상된 중동 아프리카 국민들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국산차를 선호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수출전망을 밝게해 주고 있음
- 주요 자동차 수입국중 요르단, UAE, 쿠웨이트 등의 경우 자국내 수요충족도 있지만 주로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라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고 기타 사우디, 이스라엘, 남아공, 이집트는 자국내 소비를 위한 신차 구입이 늘어나고 있음
- 승용차뿐 아니라 한국산 트럭 및 버스 등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구매(리비아, 이스라엘 등) 및 자국화 강세 (남아공), 완성차 수입관세 인하(이집트, 케냐 등)도 내년도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2004년도만 2억불 이상의 중고자동차를 수입했던 이라크의 임시정부가 금년 말 중고차 연식제한 (13년 → 5년)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를 경계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

력 상실 등이 자동차 수출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수출은 금년보다 수출신장률이 축소된 60% 내외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③ 선 박 (부진)

- 선박의 경우 중동 아프리카 수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2004년 중아 전체 수출액의 25% 전후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수출품목임
- 2004년도에는 프랑스 Total Fina사가 주문한 대규모 석유시추시설이 앙골라를 통하여 계속 수출되고 라고스 석유 및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운반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컨테이너선 인도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80%가 넘는 신장률을 기록하여 중아 지역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2005년도에도 라고스의 LNG 운반선 5척, 기타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 국내업체들이 7억불이 넘는 선박 수주, 쿠웨이트에서 현대와 대우조선이 7척의 유조선 수주 및 일부 유럽선사들의 아프리카 인도지 선택에 따라 선박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같이 선박수출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④ 철강제품(호조)

- 이란의 경기 활성화와 3차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 가속화에 따른 철강제품의 수입수요 확대 및 현지의 자동차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자동차용 강판 수입증가. 특히, 전년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철강제품 다수가 한국제품으로 조달중

- 특히 사우디의 철강류 수입관세 대폭 인하 및 중동 전 지역에 걸친 건축붐으로 철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프리카 각국의 철강회사 및 제조업체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철강제품이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지역으로 물량을 대부분 배정함에 따라 공급부족으로 내년도에도 10% 전후의 수출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⑤ 석유화학제품 (호조)

- 석유화학제품은 이란, 사우디, 이집트, 시리아, UAE 등 산유국들의 탈 석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 중 각종용기, 의료기구, 푸대, 부품, 일용잡화 등의 제조에 필요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수지, 에틸렌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 역시 흑인들의 자생력을 위한 기초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탄자니아, 콩고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상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석유화학 제품들의 경우 이란이나 사우디 등의 석유화학 공업 발달에 따라 자국내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들이 저가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격시장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형편임
- 또한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2004년도와 같이 중국으로의 물량배정 때문에 중동지역 물량확대의 한계로 인하여 대폭적인 수출 신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됨

## ⑥ 섬유류 (부진)

- 섬유류의 경우 90년대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중동 제 1의 수출 품목이었으나 최근들어 중국, 인도, 터키 등 신흥공업국과의 가격 경쟁력 열위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개무역을 위하여 UAE에서 가장 많이 섬유류를 수입하고 있으며(중동지역 섬유시장의 메카) 기타 섬유 관련 제조업이 발달한 사우디,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란, 남아공의 순으로 섬유제품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음
- 품목별로는 폴리에스터 직물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편직물, 자수포, 폴리에스터사, 폴리에스테르 섬유등이 있는데 이중 폴리에스터사와 편직물등이 뚜렷한 수출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전망도 밝은 편이 아님
- 특히 아프리카 최대의 섬유류 수입국인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국가에서 자국산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부가하거나 수입금지를 시키고 있어 수출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따라서 동 기조는 내년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등 개발도상국들의 가격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원화강세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수출이 금년대비 5%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⑦ 컴퓨터 (현상유지)

-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IT 산업과 인터넷등 관련 산업이 미 발달하여 컴퓨터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저가시장의 특성상 중국, 대만산 저가 컴퓨터의 본격적인 진출과 현지 조립생산 등

으로 매년 컴퓨터 수출의 감소세 기록

- 주 수입국가는 UAE, 남아공,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등이며 그중 UAE가 중개무역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도 중국, 대만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수출도 금년대비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⑧ 무선통신기기 (매우호조)

(휴대폰 : 매우호조)

- 무선통신기기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선전화기의 경우 개방화 및 IT 산업이 비교적 발달한 UAE, 이스라엘, 남아공,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80%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어 향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다각화가 필요한 품목임
- 하지만 삼성, LG, 팬택등 국내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진출의욕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하여 한국산 무선전화기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특히 중아지역에서 휴대폰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당분간 수출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인구가 많고 향후 무선통신관련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 리비아, 이란, 시리아, 이집트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키아등 기존 선두업체들의 대대적인 마케팅 반격과 중국산 저가 핸드폰도 출시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장기적인 핸드폰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위성방송 수신기:점증)

- 중아지역 무선통신기기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위성수신기는 그간 이라크 전후 대대적인 특수로 수출이 급신장하였으나 이후 한국산간의 가격경쟁, 중국산등의 본격적인 진출로 가

격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전반적인 수출확대에 고전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라크 치안 안정, 리비아 개방속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많음

#### ⑨ 반도체 (수출미진)

- 중아지역의 경우 제조업 미발달로 인하여 반도체 직수입 물량이 매우 적은 실정이며 동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동 최대의 공업국인 이스라엘의 반도체 제고 고갈에 따른 수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⑩ 가전기기 (호조)

- 한국산 가전기기의 경우 주로 에어컨,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비디오카메라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중 비디오카메라, 세탁기, 진공청소기, 냉장고등의 수출신장율이 높으며 칼라TV, 에어컨 등의 경우 수출이 점증, VCR등은 오히려 수출이 격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가격시장인 중아시장에서 한국산 가전기기들이 중국 등 동남아 국가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뛰어나고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되는 대형,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급형 칼라TV, 저가형 에어컨, VCR 등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이 고급, 선진제품이라는 인지도 상승과 많은 국가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로 당분간 두자리 숫자 이상의 수출신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⑪ 타이어 (현상유지)

- 타이어의 경우 철강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중아지역에 대한 아국산 자동차의 폭발적인 수출에 힘입어 앞으로 한국산 승용차 타이어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수출단가가 비교적 높은 미국 및 유럽의 수요도 동반 상승하여 물량조절과 국내 메이커들끼리 가격경쟁 및 트럭 및 버스용 대형 타이어의 수출 축소 등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수출 증가에 어려움 노정

#### ⑫ 플라스틱제품 (호조)

- 중아지역에 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분류상 기타플라스틱 제품으로 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건축건설에 사용되는 파이프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UAE, 이란, 남아공, 사우디, 이스라엘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제조업과 건설업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아지역에 수출전망은 밝으나 국내업체들의 물량조절로 인하여 대폭적인 수출확대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⑬ 자동차부품 (호조)

- 자동차 부품은 국내업체들의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이란을 중심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 After Market

시장의 소요목적으로 UAE, 이집트, 리비아, 사우디등 자동차 판매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 부품도 중국등에서 제조하여 수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수출은 통계상 5% 내외의 수출에 그칠 전망이다